통권 135 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3. 1. 15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새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사진 : 민중의 소리]

2002년 12월 31일 밤부터 새해 첫 새벽까지 '100만 촛불평화대행진' 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였다.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와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참석한 인파가 어우러져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 미군 장갑차에 죽어간 두 여중생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새해 과제로 '한반도의 자주 · 평화' 를 아로새겼다.

• 목 • 차 •

신년사 권오헌 회장 • 2 /신년시 김수룡 선생님 • 5 /감옥에서 보낸 새해인사 • 6 / 장기수 선생님들께 드리는 편지 이일규 회원 • 11 /민가협 어머님들께 드리는 편지 김숙희 회원 • 12 /모든 양심수에게 드리는 편지 허재광 회원 • 13 /출소장기수 권주환 선생님을 찾아서 이창희 간사 • 14 /노동자 정치수배자 차수련 님을 찾아서 이승미 편집위원 • 18 /이런 회원-박상렬,송금숙회원을 찾아서 이현근 편집위원 • 21 /면회기 최진미 • 23 /신년산행기 김창희 회원 • 25 /회원교육강좌 보고 정윤성 회원 • 27 /특집 "새해 우리민족의 자주평화" • 28 /나의 삶 나의 일터 이용준 회원 • 31 /시사만화 • 32 /이런 일이 있었어요 • 33 /재정보고 • 34 /회비납부 • 4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회원모임방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자주와 통일의 길로, 정의와 평화의 길로. 전쟁도 국가보안법도 양심수도 없는 해를 위하여!

양심수 후원회 회원 여러분.

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떠한 외세의 전쟁 책동에서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와 통일, 정의와 평화의 길로, 가야할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최선은 아니었지만 최악을 막아낸 국민 승리 속에 자유와 해방, 화해와 협력의 창조적 새 창을 열어 갈 2003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해가 바뀐다 해서 낡고 묵은 것 궂은 일, 어려운 일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스란히 받아 안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조국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엄중한 정세 또한 반드시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적 관계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까지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반하는 온갖 안팎의 역사적 반동에 팔장만 끼고 있지 않았듯이 이제 또 다시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새 역사를 창조할 자주의 횃불을 당겨야 할 지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대열에서 양심수 후원회 회원 여러분의 모습이 눈 부셨습니다.

양심수의 석방과 후원사업에 한결같이 큰 성원과 헌신을 다 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 통일, 사회진보와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의 편에 확고히 서서 그들의 석방과 후원사업에 헌신해 온 여러분은 단순한 양심수 후원 회원만이 아니라 민족 민주 운동의 대열이였고 불의와 모순에 맞서 싸우는 인권의 등대지기 였으며, 6.15 공동선언시대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맨 먼저 꼽아야 할 몫은 아무래도 미군 장갑차의 여중생 살인 만행에 대한 민족적 분노였습니다. 아직 피어나지도 못했던 어린 여중생을 깔아 죽인 미군 당국은 저들끼리 재판 놀음을 벌여 무죄판결을 했고, 곧바로 살인 미군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주권국가의 재판 관할권을 무시하고 저들끼리 무죄판결을 벌인 행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 문제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주권침해이고 민족 능멸 행위였습니다. 이같은 살인 만행과 재판 관할권 문제, 무죄 판결 등에서 보인 미국과의 불평등 관계는 근본적으로 미군이 부당하게 이 땅에 기한없이 무단 점거하고 있는 그 자체에 연유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한 · 미소파(1967. 2. 9)는 바로 부당한 한 · 미 방위조약(1957. 10)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서는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등 전 영토를 무상으로 무기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식민지에 주둔하는 점령군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미군은 주둔지에서 무력 공격이 있다고 '독자적' 으로 판단하면 우리 정부의 승낙 없이 이 땅에서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주둔하면서 무슨 짓을 해도 견제할 조항이나 발언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휴전 협정을 위반하며 미군이 이남땅에 많은 핵무기를 들여왔었지만 정부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시 군사작전 지휘권을 쥐고 있어 저들 마음대로 전쟁을 하고, 않고를 결정하고 있는 주권국가의 면목조차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한 · 미상호 방위조약 4조에 근거하여 한 · 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 Agreement = 한 · 미소파)이 맺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권국가 사이라면 외국 군대는 주둔국의 법률 질서에 따라야 했었지만 한 · 미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넘어 이 나라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SOFA에 비하여 불평등합니다. 미군은 치외법권적 우월한 지위를 누리며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잘 알려진 몇가지 사례만 든다해도 동두천에서의 윤금이씨 살해 만행(1992. 10. 27) 이태원 외국인 클럽 종업

원 김모씨 강간 살해 만행(2000. 2. 19) 용산 미군기지 독극물 무단 방류 행위. 그밖에도 매향리 국제 폭격장 폭격 행패 등 한·미소파협정이 있은 뒤에만도 1967년부터 1998년까지 50,802건에 관련된 미군의 수는 56,904명이었습니다.(정부 공식 집계) 이러한 주한 미군 범죄와 겹쳐 지난해 6.13일 미군궤도 장갑차에 의해 두 여중생이 죽임을 당한 뒤부터 불평등한 한·미 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전국민적 함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미 SOFA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형사 재판권 문제, 수사 협조 문제, 구금인도, 재판진행 등 말고도 군사 훈련, 환경 오염문제 등 대부분이 철저하게 미군보호위주로 짜여졌습니다.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 대책 위원회'는 이제 한?미소파 개정 부시사과 등 요구 사항을 주권 회복 투쟁으로 정의 했습니다. 뒤늦기는 했지만 미군의 작전지휘권문제, 불평등한 한·미 SOFA 문제 등이 주권 상실로 간주된다면 어떠한 이유(흔히 외세의존세력들이 혈맹관계라고 부릅니다)에도 불구하고 주권 회복 투쟁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이같은 주권침해 말고도 조국반도에서의 전쟁 책동 문제, 6.15 공동 선언 이행 방해 책동, 이른바 신 자유주의 세계화 명분으로 강요하고 있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 주로 미국에 의한 초국적 자본의 경제 침략 책동 등이 있기에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 제국주의, 일방적 군사주의 등에 맞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새해에도 계속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2002년은 또한 갖가지 우려를 떨쳐내며 선거혁명을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최선은 못 되었지만 최악을 막아냈습니다. 유권자들은 정치개혁과 남북화해협력 정책,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재정립'을 내세운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수구냉전 세력들이 상투적으로 써 먹던 분단을 악용하고 국가안보를 앞세운 색깔 논쟁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던 낡은 관행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거없는 핵소동, 공해상에서의 해적 행위 등 냉전 세력을 위한 외세의 북풍지원에서도 유권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민족 존엄과 자주 평화의 길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족을 모함하고 외세에 아부하며 수구, 냉전을 부추기던 왜곡보도 행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독재시대, 냉전시대, 외세의존시대의 유권자가 아니었습니다.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지지·이행을 재확인했으며, 민족 자주와 평화통일을 지향했습니다. 또한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 잔재를 없애고 자유롭고 평등한 기본 인권이 보장 받는 세상을 요청했습니다. 새 정권이 반드시 받아 안아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기간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개편,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의 모순성 지적의 그것이었습니다. 군부독재시대와 차별성을 강조 했었던 이른바 문민정권, 국민의 정부에서도 양심수 문제 등 전반적 인권 개선에 양적 차이는 줄었지만 질적개선은 없었기에 노무현당선자의 위와 같은 발언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대체입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폐지 발언의 반가운 소식 못지 않게 대체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존립 명분을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독재자의 정권안보, 사상탄압, 분단고착, 인권침해만을 해봤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는 국가보안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모두의 애국애족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없다해도 형법 등에서 국가 안전을 비롯한 모든 범죄 문제를 다룰 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은 필요 없다는게 오래전부터의 사회여론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이유로는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며,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기 사회안전법 대신 보안관찰법, 사상전향제도 대신에 준법서약제도를 마련했지만 위헌성 시비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듯이 대체입법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만이 있을 뿐 대체 입법해서 인권 침해 요소를 다시 보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설과는 다르게 국정원을 해외정보기구로 재편한다는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이 비밀 정보수사 기구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모든 정보 수사 기관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부당한 정치 개입, 인권 침해, 직권남용을 해왔습니다. 당장 국정원을 해체할 수 없다면 모든 수사권을 삭제한 해외정보기구로만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 정권 출범과 함께 가장 지급한 요구 사항은 양심수 전원 석방, 정치 수배 해제 그리고 구속되었던 모든 양심수의 사면 · 복권이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노무현 당선자의 한총련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어서 그만큼 기대가 크기도 합니다. 범민련, 한총련은 결코 이적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한총련과 함께 범민련은 사상, 이념제도, 정견의 차이를 넘어 남과 북 해외의 연대와 민족대단결로 통일 조국을 건설하겠다는 통일운동 단체입니다. 민간 통일 운동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범민련, 한총련의 탄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수 백명의 청년, 학생들이 정치수배로 쫓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과 학원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저절로 이적규정도 해체될 것입니다. 새 정권이 반드시 약속 이행해야 할 인권개선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수 석방 정치 수배 해제에서 노동자들의 몫이 매우 큽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과정에서 노동쟁의가 있게 되면 노 · 사 당사자 해결원칙이 아니라 이제까지 공안대상이 되어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수배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에 가압류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새해도 맞고 새정권 출범과 함께 이러한 불의와 모순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해 초부터 '악의 축' 이니 '핵선제공격' 이니 하면서 미국이 이 땅에서 전쟁책동을 벌이고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당국자 사이에서도, 민간통일운동에서도 큰 진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경의선, 동해선의 철길이 잇게 되었고,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경추협 등이 서해교전이라는 불상사 속에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외세의 간섭 책동만 없다면 6.15공동 선언 이행은 온 민족의 염원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민족통일대회도 열었습니다. 여성과 청년, 학생들은 금강산에서 통일대회를 했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열망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남북 사이의 화해와 단합 교류 협력 사업으로 자주와 통일로 가는 길을 앞 당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자는 바로 미국의 전쟁책동이고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해도 남북의 민족공조로 6.15 남북 공동 선언지지, 관철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양심수 후원회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동안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헌신으로 양심수 후원회는 목표했던 임무를 차질없이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조건, 시간을 쪼개어 성원해 주신데 다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여러 소모임 활동이 빛났습니다. 소식지 편집모임, 홈페이지모임, 시사모임, 회원관리모임, 뫼오로시모임 등 회비는 회비대로,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부담하며 양심수 후원회를 올곧게 가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탑골공원 앞 토요집회도 거르지 않고 해왔으며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 만행 규탄 집회 등 사회 단체와의 연대사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슬픈일도 있었습니다. 9.2 송환으로 평양에 가셨던 신인영 선생님께서 뜻밖에도 세상을 떠나셨고, 아드님을 목메어 기다리시던 고봉희 할머님도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수구냉전세력의 방해책동과 미국의 전쟁책동으로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올해 더욱 힘차게 2차 송환 운동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려던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2003년 새해 아침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권오헌

촛불 시위

김수룡 선생님

채 피어나지도 못한
꽃들의
영혼이라도 달래보고자
촛불을 들었다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의 육중한 장갑차에 무참히 깔려
오징어포가 되어
납작하게 죽었다

구천에 간
효순이 미선이를
양키들은 판결에서
죽인 병사는
아무 죄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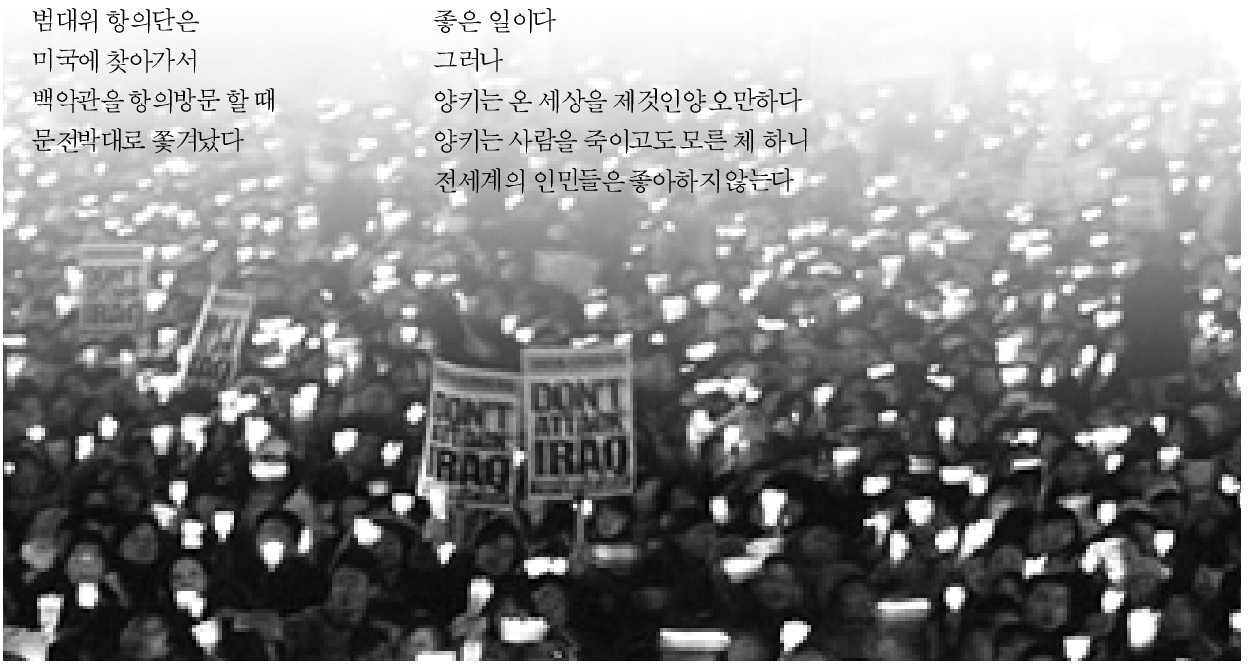
범대위 항의단은
미국에 찾아가서
백악관을 항의방문 할 때
문전박대로 쫓겨났다

온 백성은 분노하여
노도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촛불을 들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할아버지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어머니도 오고
남녀 학생들도 오고
유모차에 실려 어머니를 따라서
아기도 오고
아빠의 등에 목마를 타고 모두모두 왔다

효순이 미선이를 살려 내라고
광화문 네거리로 모여들었다
촛불을 들고 외쳤다
별들도 함성 따라 한껏 빛을 쏘았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양키는 온 세상을 제것인양 오만하다
양키는 사람을 죽이고도 모른 체 하니
전세계의 인민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양키 없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양키 없는 세상은 얼마나 편안할까
양키 없는 세상은 얼마나 평화로울까
양키는 가는 곳마다 파괴하고
양키는 가는 곳마다 학살하고
양키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유린한다
전쟁의 불장난을
이제 제발 그만 두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양키 고 홈" "양키 고 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잡았던 손 놓지 말고
10만개의 촛불을 높이 들어
통일세상 노래하자



謹賀新年

회장님, 안녕하시지요?

소식지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소식 언제나 전해듣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심수 후원회로부터 고마운 도움을 받기 시작한지 벌써 21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결같이 마음을 써 주시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커다란 도움으로 되는지, 또 제가 얼마나 크게 감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해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2003년을 우리 민족과 미국 사이의 '결전의 해' 라고 하는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니 우리 민족의 '승리의 해' 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각한 민중의 힘은 '불패' 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앞길에도, 권 선생님의 앞길에도 행복만이 가득한 새해 2003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02. 12. 16

전주에서 임 태 열 드림

권오헌 선생님께

안녕하셨습니까?

징역살이 힘들다는 핑계로 뒤늦게 인사 드립니다.

어느해보다 민족의 역동성과 역사적 변화의 조짐들이 느껴지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동안의 투쟁과 희생의 밀알들이 이제사 척박한 대지를 뚫고 함성으로, 희망으로 솟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벅찬 감격으로 민족의 저력을 보는 것 같아 지난해보다는 한결 마음이 따뜻해져 옵니다.

선생님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가 마침내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생각하면 여기서의 갑갑함보다는 오히려 힘을 보태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뜻깊은 성탄절과 복된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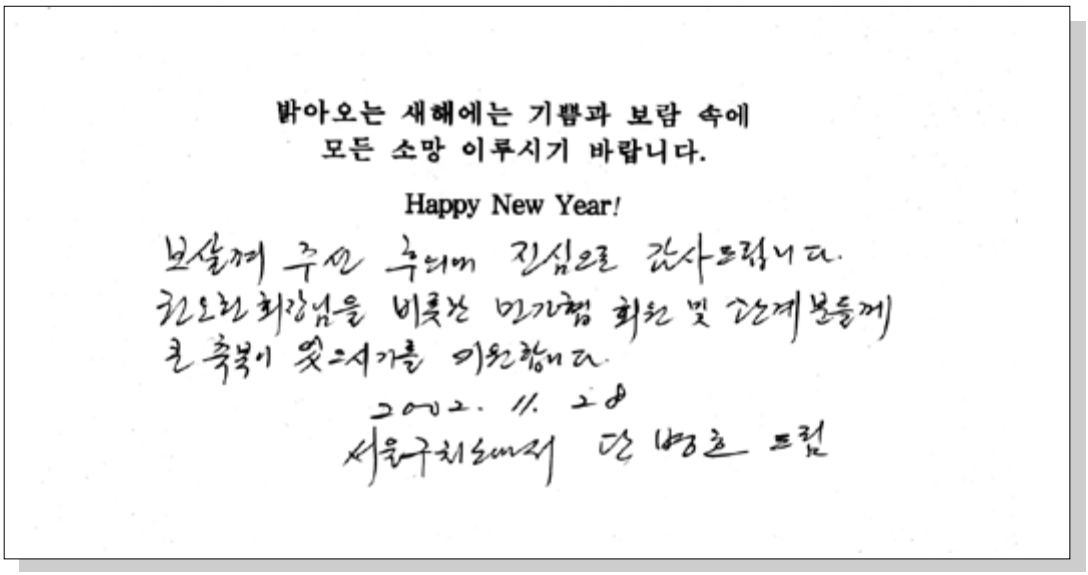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2002年 12月 15日

김 병 학 드림

언제나 험한 곳에 어깨를 들이미시고, 고난 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선생님은 영원한 청춘이십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이번 징역도 이제 끝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기쁨과 보람 속에
모든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Happy New Year!

보살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오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 및 관계분들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02. 11. 28
서울구치소에서 김 병호 드림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승리하시길 빕니다.

최 진 수 올림

존경하는 권오헌 선생님께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렇게 늦게 인사를 올려 죄송합니다. 인사를 드릴 때마다 다음부터 자주 인사를 올려야지 하고 다짐해 보건만 꼭 무슨 때가 되어야 인사를 올리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따스한 보살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영치금도 꼬박 꼬박 잘 받고 있으며, 소식지도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

제게 2002년도는 그 어느해 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어느해 보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2002년을 시작했건만, 그 어느해 보다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소설 한 겨울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전국적으로, 전계급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미의 함성은 한 겨울 추위를 녹이면서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추운 감옥에도 그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전해져 와 제 마음을 들뜨게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드는 반미 함성에 들뜬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금 지나 온 한 해를 되돌아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감동과 감격으로 올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 새로운 희망이 용솟음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처음 징역살이를 시작할 때에는 7년이라는 기간이 막막하였지만 이제 2년 7개월이라는 기간이 어찌보면 아직까지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찌보면 이제 다 산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느껴지든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항상 선생님께서 돌봐주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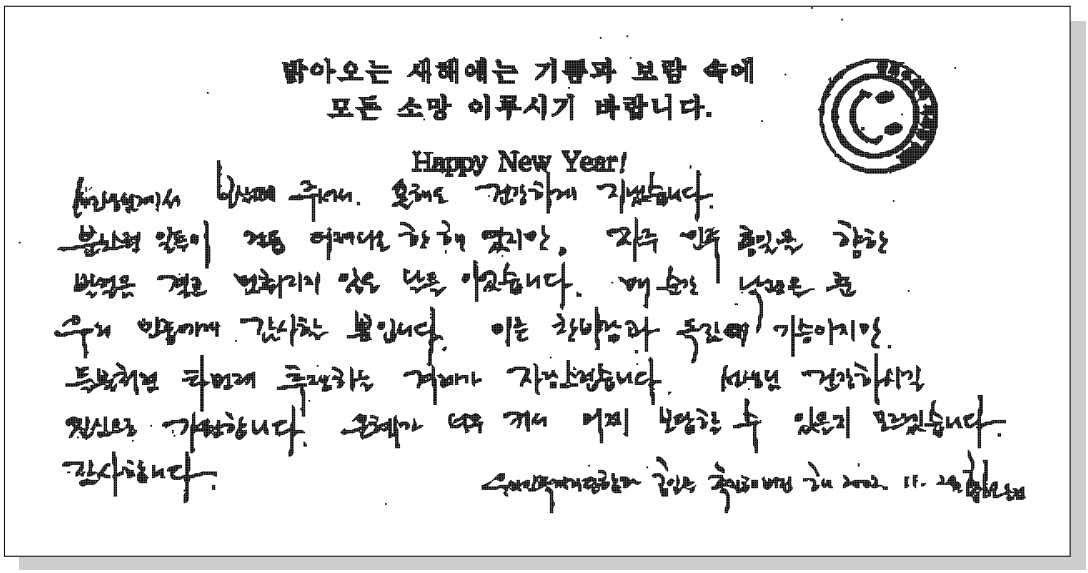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선생님께 큰 절로서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큰 기적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선생님께서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2. 12. 18

부산교도소 박 경 순 드림


밝아오는 새해에는 기쁨과 보람 속에
모든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Happy New Year!

한 해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격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양심수 후원회없는 세상, 통일된 조국 건설에 복무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 알찬 시간 보내겠습니다. 권오헌 선생님을 비롯한 식구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12월 17일

김 혜 신 드림

존경하는 권오헌 선생님.

해가 바뀌는 길목에서 다시 인사올립니다.

선생님의 크신 사랑과 노고 덕택에 무사히 한 해를 건넜습니다. 멀리서나마 큰 절 올립니다.

어렵고 힘겨운 행군이었지만 성과도 많았고, 미래도 밝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특히 저처럼 염치없이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더욱 분발해야겠습니다.

저도 새해에는 선생님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정의와 진리 안에 머무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2002년 해저물 무렵

김경환 올림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양심을 가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생명이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모든 양심수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저 또한 기원하겠습니다.

양심수 후원회 모든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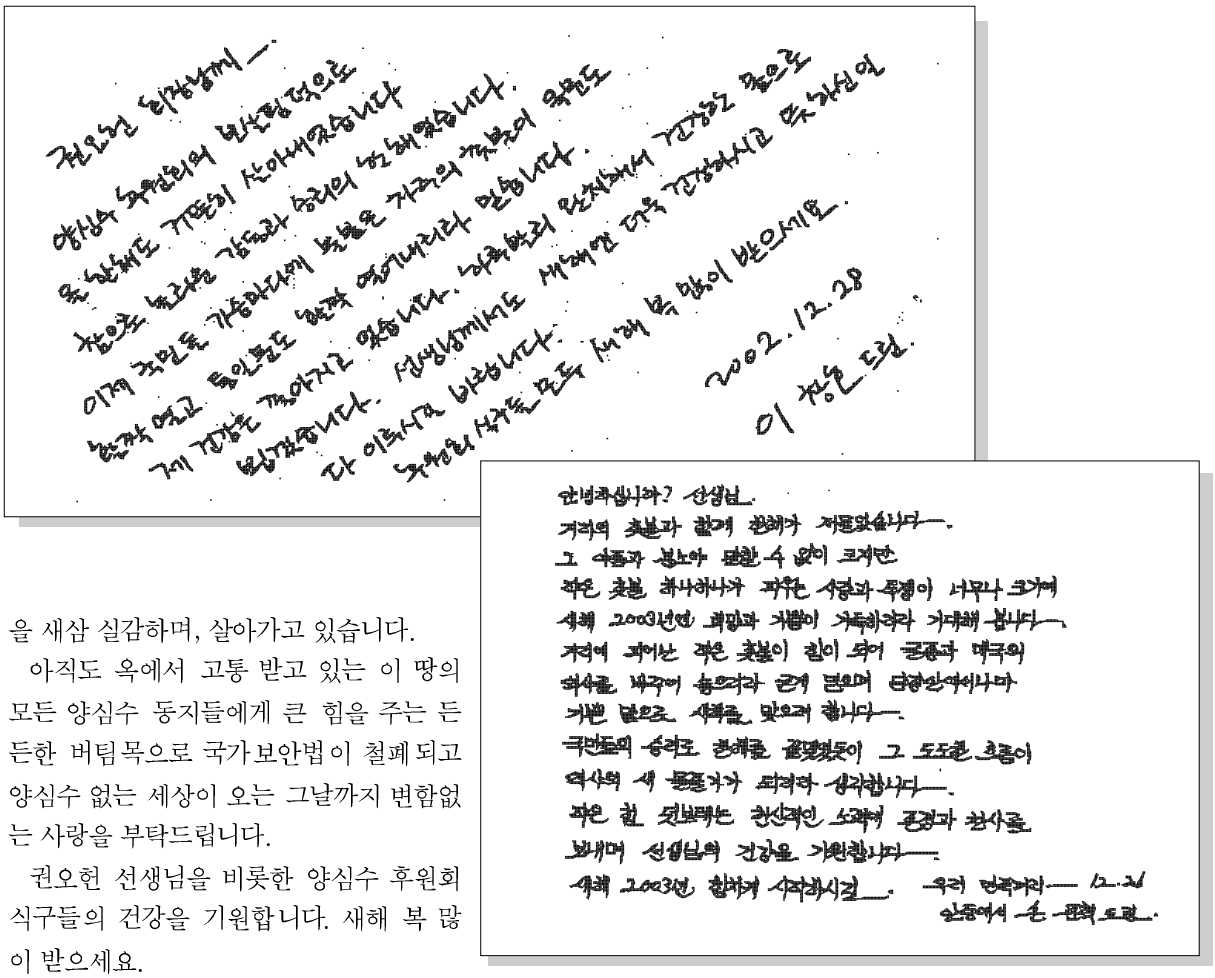
새해 福 많이 많이 받으세요.

2002. 12. 20. 유 병 권 드림.

양심수 후원회 식구들에게

한 해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들기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인정넘치고 희망찬 기운이 도는 세밑이라는 기회를 동무삼아 죄송함과 고마움을 담아 늦은 인사를 드립니다.

길지 않은 옥살이지만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밖에서 지낼때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고마움


권오헌 선생님께 —
양심수 후원회의 보석활동으로
옥 안에도 가뜩히 산아내었습니다.
높은 뉴스를 감동과 승리의 성과였습니다.
이제 국민들 가슴마다에 불붙은 자유의 횃불의 유산도
한꺼 여고 통일을도 한꺼 열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때 건강을 기원하시고 있습니다. 나라 복리 만전하여서 건강하시고 모두 선생님
보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다 이루시고 바랍니다.
동지들 석방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2002. 12. 28
이 석기 드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겨레의 촛불과 함께 한해가 저물었습니다—.
그 아픔과 분노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작은 촛불 하나하나가 자유는 사랑과 투쟁이 너무나 크기에
새해 2003년엔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겨레에 피어난 작은 촛불이 길이 되어 군중과 대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리라 굳게 믿으며 다정한 여러분과
기쁜 맘으로 새해를 맞으려 합니다—.
국민들의 승리로 촛불을 끝맺었듯이 그 도도한 흐름이
역사의 새 물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힘 뜻보태는 한신적인 소망에 관심과 참사를
보내며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2003년 힘차게 시작하시길—. 우리 민족이리— 12.31
일동에서 손 편지 드림.

을 새삼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양심수 동지들에게 큰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양심수 없는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권오헌 선생님을 비롯한 양심수 후원회 식구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기 한총련 의장 김 형 주 드림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I 해고자 송수근입니다.

98년도 구조 조정 반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어 현재 5년째 원직 복직과 민주 노조 건설을 위한 투쟁을 하다가 삼성재벌로부터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구속되어 현재 대구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양심수 후원회에서 보내준 영치금, 정기 소식지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투쟁하여 노동자 · 민중이 주인 될 세상을 위해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삼성해고자 송 수 근 드림

권오헌 선생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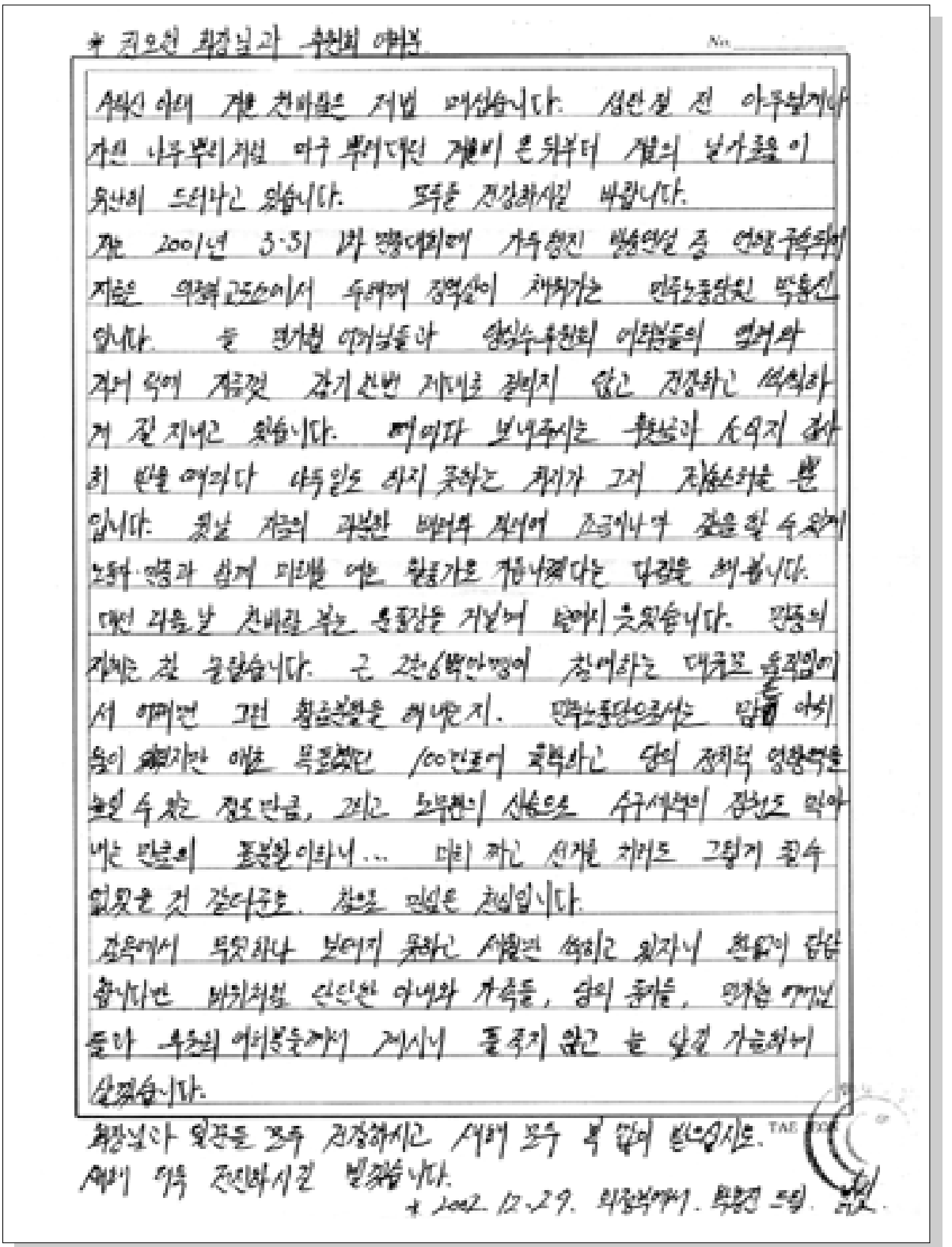
동 터오르는 새벽.

둥그런 새해가 찬란하게 빛을 놓으며 내일의 희망을 밝혀 줍니다. '갇힌 자 풀려나고 눌린 자 일어나는' 해방의 물결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새해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선생님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2003. 1. 5

이석기 드림



* 권오헌 최강남과 후원회 어르신.

No.

수신 아래 겨울 건배를 저법 마십습니다. 성탄절 전 아주날게나 가신 나주부의 지실 마구 부러대던 겨울비 온 뒤부터 겨울의 날카로움이 온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01년 3·31 1차 민중대회에 가두행진 방송연설 중 연행 구속되어 지금은 의정부교도소에서 두려움 정역살이 치러가는 민주노동당원 박홍신입니다. 늘 편지 여러님들과 광주수후원회 어르신들의 열려와 격려 덕에 지금껏 감기 한번 지나지 않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때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과 소식지 등과 회 한줄 여러다 다두일도 하지 못하는 저가 그저 저릿스러울 뿐입니다. 곧날 지금의 과분한 배려와 저에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노동과 민중과 함께 미래를 여는 활동가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대선 치룬날 건배를 부는 흥분감을 거닐며 보내기 웃었습니다. 민중의 지지는 참 놀랍습니다. 근 2천6백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동원임에서 이러면 그런 활동보람을 해내었지.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애초 목표했던 100만표에 육박하는 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정도만큼, 그리고 노무현의 신념으로 수구세력의 장난도 막아내는 만큼의 표본일이라니... 대리 파는 선거를 치러도 그렇게 좋수 없었을 것 같더군요. 참으로 멋있는 선거입니다.

감옥에서 뜨겁지나 보내지 못하고 시원찮게 있자니 한없이 답답합니다만 바위처럼 신신한 아내와 가족들, 당의 동지들, 민가협 어머님들과 후원회 어르신들까지 계시니 결국지 않고 늘 살길 가능하니 살겠습니다.

최강남과 일꾼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더욱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 2002. 12. 29. 의정부교도소. 박홍신 드림.

선생님들이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르지 못할 산처럼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선생님들의 얼굴이 어느덧 자상하고 인자한 미소로 머릿속에 새겨져 갑니다.

날씨도 춥고 독감이 기승을 부린다는데 선생님들의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수많은 시간을 민족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오신 선생님들의 강철심장에 어디 그딴 감기가 들어 올 수 있을까만, 그래도 선생님들의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항상 건강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긴 시간 옥중에서 무슨 꿈을 꾸고 계셨나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손주뻘 되는 놈이 나와서 선생님들께 편지를 읽어 드리고 있는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차갑기만 한 교도소 독방의 바닥도, 할 말을 잃어버릴 만큼의 외로움도, 무자비하게 날아오는 몽둥이 앞에서도 놓지 않고자 했던 선생님들의 신념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저희들을 보며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요.

미국은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의 여중생을 죽이고, 또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다녀오셨던 감옥의 빈방을 수많은 양심수들이 채워가고 있는 현실을 보며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요.

분단의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찢겨진 조국 하늘을 다시 잇고자 고귀한 생명마저 역사에 바치신 선생님들께서 걸어 오셨던 가시밭길의 시간이 벌써 오십년도 넘게 훌쩍 지나 버린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간 수많은 동지들의 시체가 썩어 이름모를 대지에 흩어 졌습니다. 그 위로 넝쿨이 자라고 나무가 자랐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치열한 역사는 흘렀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루지 못한 통일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이 있는 한 세월이 흘러도 선생님들은 청춘이십니다. 백발이 휘날리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도 선생님들은 영원히 청춘이십니다. 청춘의 마음으로, 커다란 가슴으로 저희를 품어 주십시요. 또한 저희가 지치고 흔들릴 때 호되게 나무라 주십시요. 그리고, 저희의 손을 꼭 잡아 주십시요. 이제 곧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저희에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요. '수고했네' 라구요.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과 마주앉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선생님들을 처음 뵙던 때가 생각납니다. 4월달 역사강좌 시간에 처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달 산행을 갔습니다. 북한산 진달래 능선을 오를 때 젊은이들을 압도하셨던 선생님들의 힘찬 발걸음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역사강좌 시간에 젊은이들보다 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진지하게 청강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백마디 말보다 더 크고 무거운 선생님들의 행동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의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선생님들이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그 희망이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때까지 다시 한번 항상 건강 하십시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회원 이일규 올림

실천을 주시는 우리 어머님들께....

길가를 나서며 자꾸만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어머님.
어느새 겨울도 이렇게 점점 농익고 있네요.

건강들 하시지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일깨움을 주시는 어머님들…
올해도 저희는 이렇게 어머님들의 가르침으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피곤한 내색 한 번하지 않으시고, 영악치 못한 자식의 허물 다 껴안으시며 투쟁가가 되어 땀 흘리시는 우리 민가협 어머님들…
전 보라색이 그리도 아름다운 빛깔인 줄을 어머님들의 가슴에서 그리고 머리 위에 곱게 쓰신 수건에서 보았습니다.
수갑을 찬 자식을 보며 '야! 이 녀석아~ 이제 그만 포기해!' 할 수도 있으련만…
절대 무릎꿇지 말라고, 양심을 속이는 일은 결코 하지 말라는 어머님들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끊이지 않는 의지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목요집회에서의 뜨거운 투쟁, 민가협 장터에서의 포근함, 수련회에서의 멈추지 않는 열정,"당연히 가야 할 자리"라며 못된 것들을 쓸어버리는 집회에 늘 모습을 나타내시는 보라빛 어머님들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님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따스해지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솟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투쟁에서도 어머님들이 계시면 저절로 어깨가 펴지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많은 절망과 수모 다 이겨내시며, 자식들 걱정에 하루도 베갯잇이 마를 날 없으셨을 걸 생각하면 명치끝이 아파옵니다.
이름만 불러도 뿌듯하실 자식들 빼앗기고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그 자식들 어서 빨리 어머님들 품속으로 돌아와 함께 팔짱끼고 시장에도 가고, 텔레비전 보며 담소도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꾸준히 걸어가실 어머님들의 귀하신 발걸음에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은 더욱 추워지겠지요?
내복 꼭 챙겨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그동안 노곤하셨던 몸과 마음 오늘만큼은 따끈한 방에서 녹이시기 바랍니다.
2002년 한결같이 보여주셨던 실천에 감사드리며, 저희도 게으름없는 행동으로 새로운 한해를 임하겠습니다.
'운동'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어머님들의 모습,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김숙희 올림

바로 양심의 최전선 창살 안에서

얼마전 모방송의 뉴스프로그램은 제주도에서 홍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본질적으로 아름다우니 꽃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이야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그보단 홍매화 소식이 좀 특별한 의미로 제 마음을 파고드는 이유는 아마도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 탓일 것입니다. 주변이 온통 허연 눈밭인 상황과 가파른 언덕이라는 조건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너나 할 것 없이 움츠러드는 겨울이라는 총체적 이미지. 그러한 현실속에서 피어난 홍매화의 붉은 아름다움은 실로 눈부시더군요. 알맞은 조건속에서 피어난 나머지 계절의 꽃들이 주는 감동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겠죠.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군생활을 했기에 요즘처럼 맹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군에 가야 한다는 분단 상황 속에서 전선의 외로움을 품고 매일매일 추위의 맹렬함과 사투를 벌이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사회적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주어지기에 그나마 그 모순된 현실을 그럭저럭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마음이 착하다는 것이겠죠.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죠. 물론 제도로서의 종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다른 전선. 바로 양심의 최전선 창살 안에서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지금 이시간에도 불의의 교활함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분들께 이 편지를 띄웁니다. 보이는 허상만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삶을 사는 저로서는 펜을 드는 것 자체가 무척 버겁게 느껴지는 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동경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삶을 꺼리는 이율배반적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겠죠. 따스한 방안에서 편안하게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위선일 수 있겠다는 의구심마저 드네요.

마지막으로 서산대사의 싯구를 떠올려 봅니다.

"눈밭을 걸을 때라도 결코 발걸음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그대가 걷는 이 길이 바로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므로."

님들의 삶을 이정표로 삼고 모순된 삶과 치열하게 투쟁하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다는 것 아시죠.

기상이변으로 전세계가 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럼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갈현동후원회 회원 하재광 올림

지금까지 푸른 나무로 살고자

이창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

필자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와 함께 한 지 만 2년이 지났다. 후원회 산행에 참가한 지는 2년이 넘는데, 항상 산행할 때마다 느끼는 놀라움은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로 인해 지팡이를 짚으심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과 산 걸음을 함께 하는 장기수선생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었다. 전날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을 먹어 등산하기 힘들 때에도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오르시는 선생님을 뵈면 어려움이 사라졌다.

김교영 선생님(좌)과 권주한 선생님(우)

1. 배움의 뜻이 크고

그 선생님이 바로 권주환 선생님이시다.

선생님은 경남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의 128호가 넘는 큰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사서삼경을 암송하실 정도로 한학에 깊으셔서 서당 선생님을 하시고 나중에는 건축일을 하신 권석대님과 임복걸님 사이에서 4남매가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선생님은 1921년 음력 2월 21일에 장자로 나셨다. 집안에서 한학에 밝으신 당숙께 8살 때부터 한학을 배워 사서를 마치고 삼경을 배우고 있는 12살 때 신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집에서 도망쳐 머리를 깎고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에 편입하셨다. 그러다가, 동네가 큰 마을이어서 간이학교가 생겨 그 곳에서 학업을 마치셨다.

15살에는 함양군청 소재지에 있는 1년 단기과정의 농업학교에 다니셨다. 이 때 선생님은 집안의 강요에 의해 중매로 너무나도 고우시고 2000년까지 생을 함께 하신 유이조님과 결혼을 하셨다. 하지만, 선생님은 결혼생활보다 배움에 뜻이 더 크셨다. 14살 때에도 집안에서 결혼을 하라고 하자, 집에서 도망친 적이 있다고 하셨다.

일본에 가실 생각으로 일본 동경공업학교에 입학원서를 내셨는데 답신이 오지 않자, 청진에 있는 일철공장 부지공사장으로 향하셨다.

"일본에 가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집에만 있지 말고 여행을 다니면서 배우자라고 생각했지. 또 어려서인가 철로 만든 것 중 제일 큰 것을 직접 움직여보고 싶은 생각이 매우 컸지."

청진에 도착했는데 하도 춥고 배고파서 하루만에 공사장에서 도망치셨다. 그 후, 철도를 따라 이틀을 걸어 함북 명천 질소공장 병원에서 목공일을 하게 되셨다. 3년 일하면 공구 한 벌 사주겠다라는 말에 유혹되어 이른바 '시다바리'로 있게 되신 것이다. 두 달간 일하다가 당시 비빔밥 한 그릇에 5전이었는데 겨우 50전을 받아 또 기차를 타고 청진으로 도망치셨다.

걸어서 나진으로 가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웅기 백마산 밑에 있는 '동명화숙'에 가서 묶으셨다. 그 곳에서 나남 80연대 3대대 관사 공사장에서 일하게 되셨다.

2. 귀중한 약속

선생님은 이 때 귀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셨다. 그 곳 장로교회 목사로 경남 사천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생 조무제라는 분을 만나 진보적 세계관에 대해 눈뜨게 되셨다. 그 분은 동경에서 공부를 하고 조국으로 나왔다가 중국 연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한다. 떠나시면서 1년후 만주 봉천 서탑 '동양여관' 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다고 한다. 선생님께 '콘크리트 공사' 라는 등의 표지를 지닌 책 2권을 선물하였는데, 그 책의 본 내용은 '사회주의', '토지개혁' 등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셨다.

이렇게 싹튼 진보적 항일의식으로 공사장에서 조선사람을 사람취급도 안하는 감독 기무라라는 고약한 일본놈을 미끈한 삽으로 후려치고, 백마산과 아오지 탄광을 지나 그 길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가셨다.

만주 길림성으로 가서 봉천까지 연결된 '봉길선' 을 따라가다 철로 가에 있는 '회룡현' 이라는 농촌 마을에서 겨울을 보내셨다. 그리고, 두 달간 만주 여행을 하며 하얼빈에 가서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쏘아 죽인 곳도 가보셨다. 여행경비는 그때그때 번 돈과 결혼하자마자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위가 불안하여 정착을 꾀하려 20원씩 두 번 돈을 부쳐 준 처가의 도움으로 충당하셨다고 한다.

여행을 마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년 2개월을 봉천에서도 조선인이 많이 사는 서탑에서 생활하셨다고 한다. 약속시간이 지났어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그곳에서 계속 생활을 하신 것이다. 이 때 중일전쟁이 났다고 한다. 선생님은 조선보다는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인 만주 도처에서 일본의 잔학한 지배상을 들으면서 더 깊고 치열한 항일의식으로 무장하게 되셨고, 훗날 해방 후 남로당 경남 조직부장을 맡은 안병하님 등 진보적 인사들과도 교류하게 되었다. 당시 안병하님은 메이지대에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끌려갔는데 탈출하여 중국 팔로군의 대장정에 합류, 다시 조선독립을 위해 만주 봉천으로 나와 고향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셨다고 한다.

이러한 생활 중 1939년말 여비를 옷 안 곳곳에 꼼꼼히 숨겨 봉천으로 직접 찾아오신 아버님을 따라 귀향하게 되셨다. 그 때는 기차비가 비싸서 워낙 큰돈인 표값 그 자체를 훔치려는 도둑들이 많았다고 한다.

3. 귀향과 해방

귀향 후 선생님은 징용과 징병에 시달리게 된다. 20살에 북해도 탄광으로의 징용이 시작되자 무주 구천동으로 도망치셨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오니 다시 일본군 지원병으로 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끌려가셨다. 태릉의 지원병 훈련장까지 갔다가 '총알받이 개죽음' 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어 신체검사를 앞두고 새벽에 유부 담그는 소금물을 마구 들이켜서 몸에 열이 오르자 '급성 인파선' 이라는 판정을 받고 마산에 있는 군 병원에 가서 2주일 동안 치료받으라는 명령을 받고 거창까지 내려가다가 덕유산 '영각사' 로 도망쳤다고 한다.

이 때 훗날 근로인민당계열로 출발하여 남로당 빨치산활동을 한 본명 하준수인 남도부님를 만나게 되셨다. 그들은 각자 스스로 생활해야 한다라는 원칙아래 흩어졌고, 선생님은 전북 장수로 가서 치공기술을 가진 친척과 함께 소위 '치과 야매' 등의 장사를 하며 떠돌며 생활하다가 집안에서 부산에 있는 일본인 병무관에게 쌀 한 가마를 주어서 문제가 해결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셨다.

돌아오신 선생님은 정미업을 하여 산을 오정 팔반을 사는 등 재력가로 활동하시다가 20대 중반에 8.15 해방을 맞으셨고 곧장 '건국준비위원회' 에 가입하여 서울 중앙 건준과 고향 지방 건준과의 연락하는 일을 맡으셨다고 한다.

1946년 마을의 건준 성원들은 모두 남로당에 가입하여 조직을 전환했다고 한다. 이는 선생님 고향 마을 사람들의 진보적 의식이 드높다는 것, 단결 정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선생님은 당생활을 하시면서 군당 연락책임자를 맡게 되셨다고 한다. 선생님의 집인 정미소가 합법적 거점이 되어 많은 외부인사들이 왔다 갔다 하였고, 동네 젊은 청년들이 자주 모이는 집합소가 되었다고 한다.

4. 역사적 진실과 빨치산

대구 10월항쟁을 본격적 시작으로 1947년에 들어서

면서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지식인들 중에는 당을 떠나기도 했고, 활동방식에 있어 지하 공간을 발굴하는 등 비합법적 방식을 철저히 연계하게 되었다고 한다. 활동가들은 비밀 아지트를 야외 2개, 집안에 2개를 반드시 갖는 등 엄격한 조직보안활동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그러한 활동 중에도 네 번 연행되셨고, 한번은 죽을 정도로 실컷 맞기도 하셨다고 한다. 선생님은 안전을 위해 1947년 말부터 이미 반 빨치산 활동을 하셨다고 한다.

1948년 4.3항쟁 및 여순 사건이후 반공 탄압이 더욱 심해지면서 "안 죽고 살기 위해서" 그 해 중엽 군당 조직지도원으로써 본격적인 빨치산 활동을 하시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인지 1948년 서북청년단, 광복청년단, 경찰들로 구성된 20여명의 사람들이 동네에서 제일 잘 지어졌다는 선생님의 집을 불태웠다고 한다. 이 불로 화상을 입으신 아버님은 객사하시고, 여동생과 남동생이 빨치산으로 입산하게 되었고, 사모님은 태어난 지 이틀 밖에 안 된 막내딸을 데리고 인근 마을로 도망쳐 겨우 살아나셨다고 한다.

이 비극은 한 집안에만 그치지 않았다. 1949년 7월 고향 진보적 마을은 참극을 당한다. 마을 사람 42명이 12~13㎞ 떨어진 함양경찰서로 끌려가서 함양 읍내 앞산 포티재에서 몰살당했다. 이는 한국전쟁 상황도 아닌 시기에 '빨치산 소탕'이라는 이유로 마을 주민을 몰살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가슴아픈 전쟁상황을 탓하여 일말이나마 이해하려해도 결코 있어서는 안될 비인간적인 참변인데 말이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은 이미 한반도에서는 미군정과 과거 친일파 세력에 의해서 한국전쟁 이전부터 비인간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늘날 고향 사람은 7월에 제사를 많이 지낸다. 최근에는 유골을 발굴하여 고향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그 건너편에 묻어놓았다고 한다.

선생님의 역사에서 이미 한국전쟁 이전부터 전쟁이었다는 사실은 계속 드러난다.

선생님은 지리산에 올라가 경남 서부지구당 지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면서 때때로 산 밖에서 활동도 하셨다. 1949년 5월에는 부산으로 가서 11월까지 경남도당 지도원으로 활동하시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1950년 3월에도 경남도당 지도원으로 산을 내려가 덕유산,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들어가셨다. 하지만, 부산에서 함께 산을 내려왔던 동지가 먼저 붙잡혀 실토하였기에 접선장소에서 붙잡히게 되셨다.

계엄령 하에서 군대의 정보에 의해 잡혔기에 선생님은 광주에 있는 5사단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 받으셨다. 그러던 중 1950년 5월 15일 경에 빨치산 소탕 목적의 5사단이 감방 감시초병만 남겨놓고 모두 3·8선 전방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헌병들이 우리가 언제 전방에 가는데, 그러면 이 곳은 비는데 누구라도 남아야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셨다고 한다. 군대는 이미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방으로 결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사전 계획되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선생님은 그렇게 광주에 있다가 한국전쟁 후 광주로 내려온 인민군에 의해 석방되었다. 석방되자마자 인민병원으로 허약해진 몸을 치료받기 위해 가는데 '쌕쌕이'라는 비행기의 폭격을 받아 앞에 가던 사람이 죽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 후 걸어서 함양까지 가고, 진주로 가서 도당을 만나고 9월 후퇴 때 다시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한다. 선생님은 1952년에 산청, 함양, 거창 지역을 관할하는 경남도당 중부지구당 책임자를 맡게 되신다.

이러한 빨치산 활동에서 선생님은 입산한 두 동생을 모두 잃으셨다. 둘째 여동생은 1952년이나 1953년경 덕유산 자락의 황석산 아지트에 포위되어 동료 여맹 2명과 함께 폭탄을 터뜨려 자결하였고, 셋째 남동생은 1954년 덕유산 해인사 단지봉에서 전사하였다고 한다.

선생님도 1954년 2월 27일 거창 신흥원면에서 잡히셨다고 한다. 며칠 전 접선을 위해 산밑으로 내려갔다가 연락과정에서 샜는지 미리 제보를 받은 경찰 40여명에게 둘러싸이게 되셨다고 한다. 비 오듯이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선생님도 권총을 당기고, 수류탄을 던졌지만 총 3발 외에 모두 불발되었다고 한다. 논두렁

골짜기를 통해 과감하게 탈출해 성공하셨다. 인근 산골짜기로 가셔서 옷을 보니 총알 구멍이 12곳이나 있었다고 한다. 다리에 약간 스쳤을 뿐 큰 부상은 없으셨다. 정말 천운이었다.

선생님은 이러한 정세에서 도저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길로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 몰래 친척집으로 가셨다. 그 곳에서 친척을 시켜 어머님과 만나게 하여 여비를 마련코자 하였다. 하지만, 1시간 뒤 마을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것을 눈치챈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있었던지, 항상 밀정이 잠복해서 였는지 형사가 나타나 선생님을 체포하였다.

선생님은 전쟁이후 남원으로 옮긴 5사단으로 압송되었다. 다행히 예전 사건 기록은 없었다고 하셨다. 또 다시 선생의 어머님은 집 토지를 팔아 백방으로 노력하여 선생님은 3번의 재판을 받아 처음에는 무기, 두 번째에는 8년, 세 번째에는 5년을 선고받아 전주형무소에 수형되셨다. 그 곳에서 쥐고기 등을 주는 비인간적 처사에 폭행을 당하면서도 단식으로 항의하다가, 그로 인해 마포형무소로 이감되어 약 6년을 징역 생활하시고 1960년 4월에 석방되었다.

5. 투철한 자주의 생활

선생님의 서울생활은 이렇게 마포 출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많은 이들이 죽은 고향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서울에서 생활하자고 생각하신 것이다.

그 때부터 선생님은 스스로 자력하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끼치지 않기 위해 건설일용노동자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목공부터 집에 관련해서는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 선생님 댁 현관 안에는 쇠지팡이가 여러 개 걸려있는데 이는 모두 선생님께서 스스로 제작하신 것이다. 집안 곳곳에 선생님께서 손수 제작하신 가재도구가 눈에 띄었다. 선생님은 낙성대 만남의 집에도 여러 번 오셔서 집안 곳곳을 손보아 주셨다.

이러한 노동생활 속에서 사모님과 함께 자식들을 키우셨다. 아들들은 모두 서울대를 나왔다. 현재 큰아들은 학교 교감선생이고, 둘째 아들은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만든 '믿음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막내딸에게 미안함이 많으시다. 오빠들은 공부를 많이 하였지만, 가난한 형편에 딸을 제대로 공부시키지 못한 것 때문이다. 독학으로 대입검정고시까지 통과하여 숙명여대에 합격하였지만 다니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녀 모두가 선생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른다고 한다.

선생님의 일상에도 공안기관의 추적은 멈추지 않았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행되셨다고 한다. 4.19 직후와 그 1년 후, 그리고 80년대에 한 번 등 말이다. 주거제한을 따르지 않는다는 명목에서였다고 한다.

선생님은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껏 세상을 살아오셨으며, 지금도 노구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에 빠짐없이 함께 하신다.

필자는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다.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왜 빨치산 활동을 하셨냐고 건방지게 물었다. 선생님은 '자주'의 원칙을 말씀하셨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풀어야하듯이, 나라의 문제도 외세의 간섭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해야돼."

더불어, 자신이 바라는 사회상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아이들을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하고, 65세 이상의 노인 또한 국가가 책임져주는 사회가 되어야지."

선생님은 이러한 세계관과 삶의 원칙으로 지금까지 푸른 나무로 살고자 하신 것이다. 이렇게 살아오시고 "통일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선생님께 젊은 필자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오래 건강하시면 꼭 통일을 보실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 번 큰 책임을 느꼈다.

선생님은 인터뷰 마지막에 젊은이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다.

"우리의 기본 문제 자주와 통일을 풀려면 우리 국민 스스로 의식을 더 높이고, 서로 뭉쳐야지.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지. 사상적, 조직적 기초 없이 그 어떤 승리도 불가능하거든."

병원노동자들 정말 씩씩하고 당당합니다

이승미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다. '희망'의 현실화도 조심스레 기대해볼 수 있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짐짓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20여일이 지나가고 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일까, 개인적으론 우려 쪽이 자꾸만 크게 다가오고 있으니… 깊이 패인 아픔의 골을 여전히 안고 지내는 효순, 미선이의 가족분들을 보면서 그렇고, 이제 다시는 없기를 바랬던 노동자 분신자살을 또다시 접하게 되면서도 그렇고, 오랜 단식농성 끝에 그만 병을 얻어버린 차수련 님을 만나보면서도 그렇다. 현실은 아직 우리에게 잠깐의 중단이나 휴식조차 허용치 않는 것인가.

8일 늦은 오후,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 위원장 차수련님을 만나러갔다. 98년에 4개월 간의 명동성당 농성과정에서 '명성황후'라는 별명을 얻었었다는 예의 그 견실한 분과의 만남 약속은 나를 설레게 했다. 몸이 안 좋아 그날 낮에 산소마스크를 쓰고 계셨다는 말을 전해들었음에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갔으나, 차수련님의 병세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심부전증에 걸려 두 달 넘게 고생해오고 계신다. 수배생활과 단식농성 끝에 온 것이라지만 원인이 어디 그뿐이겠는가. 인터뷰 내내 나는 조심스러웠고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든 차수련님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이다. 83년 한양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한양대 병원 수술실에 근무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을 찾아오는 수많은 성수동 산재노동자들을 보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다.

"87년 한양대 병원노조를 결성하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했으니 올해가 노조활동 15년째네요."

한양의료원 노조위원장, 서노협 부의장, 병원노조협의회 초대 사무국장 등을 거쳐 99년 12월, 최초의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 직선 초대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작년 9월11일, 파업 농성 중이었던 강남성모병원에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을 관할하고 있는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위치한 명동성당에서 천막노숙투쟁을 전개했었다. 그후 파업 126일째 되던 9월25일부터 차수련님은 노조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명동성당에서 20여일 간의 노숙단식농성을 벌이면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장기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 및 노조탄압 중단,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을 요구하며 사태해결을 위한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공권력 투입 전, 면담만 몇 번 있었을 뿐 정식 단체협약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의료원 측은 물론, 성모병원 이사장인 정진석 대주교는 노사간의 '기본' 조차도 모르며 신(神)의 이름으로 온갖 아집과 권위만을 내세우고 있지요."

노숙농성과 더불어 첫 산별노조 총파업, 바티칸 로마교황청에 원정단 방문, 집단 삭발식 등 병원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은 217일간이라는 기나긴 파업을 끝으로 지난해 12월26일 현장복귀를 결정하였다.

"병원노조원들의 투쟁은 정말 기적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타 사업장처럼 대량해고나 공장이전, 직장폐쇄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온갖 협박과 회유 등의 유혹이 무척 많았음에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많다는 반증이겠지요. 병원노동자들 정말 씩씩하고 당당합니다."

파업종료를 결정하던 순간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이 400여명이나 되었다. 구속, 수배, 해고, 무노동무임금, 가압류, 병원 출입금지 가처분, 경찰병력 투입과 강제해산 등 온갖 탄압을 겪으며 싸워왔던 이들은 그대로 파업의 깃발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복귀가 투쟁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 이라고 말한다.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도 저들은 교섭을 거부했어요. 온갖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계속 파업투쟁 형태로 가기엔 조합원들에게 너무 부담이라는 판단이 있었지요. 전열을 가다듬어 현장투쟁 형태의 장기전으로 가자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다.

현장복귀 후 의료원 측은 보복인사, 부당한 부서 이동을 감행했고,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는 엄청난 액수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참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차수련님과 노조원들이 여전히 강인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얻어진 성과가 너무 크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우선,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어느 사업장과 조직에서도 하지 않았던 '직권중재' 라는 악법을 여론화, 쟁점화 해냈어요. 또한 7개월여 동안 버티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 탄압에도 당당하게 싸우는 강단을 보여줌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갖게 되었지요. 너무나 순박하고 착한 병원노동자 분들입니다. 모두에게 참으로 고맙고, 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무노동무임금 정책은 곧 파업을 막겠다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의 막막함 때문에 많이들 현장에 복귀하는 안타까움을 지켜보아야 했었지요. 그러나 수많은 단체, 정당 그리고 의사들까지 계속 연대하고 함께 해주어 인간다운 면모가 돋보였던 투쟁이었습니다."

현재 심부전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차수련님을 구리시 원진녹색병원의 의사들이 매일 방문치료를 해주기 시작한 게 벌써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한다.

CMC 파업 4일째부터 결합한 차수련님은 바로 이틀 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금껏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87년 이후 네 번의 구속과 두 번의 해고를 겪었습니다. 통틀어 전과 5범이지요. 그런데 운이 좋은 건지 매번 집행유예를 받았었어요. 현재는 2000년도 총파업 건으로 집유기간에 있으며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또 구속이 된다면 분명 실형을

받게 되겠지요."

현재 CMC 파업으로 네 분의 조합원(경희의료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이 구속되어 있고, 차수련님 뿐아니라 강남성모병원 지부장님 그리고 지난해 12월13일 보건의료노조 3기 위원장으로 새로이 당선된 윤영규(전 부위원장)님 등 세 분이 수배상태에 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끝난 게 아니어서 새로이 당선된 윤영규 위원장님이 해야할 일이 무척 많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차수련님께 사실상 가장 듣고 싶은 질문을 슬그머니 꺼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려움과 바람 같은 것들을…

"제가 집에 8개월째 못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아이들을 방목(?)하고 있다 하대요. 아무래도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첫 번째 큰 어려움이지요. 그리고 저의 종교가 카톨릭인데 썩어빠진 성직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토록 비양심적일 수가 있는지… 또한 힘들어하는 조합원들을 볼 때면 저 역시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지곤 하지요."

"노무현 정권에 대해 일련의 기대감 갖고 있어요. 이전의 정권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지요. 나름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철저히 소외계층의 입장에 서고 양심수가 없게 하며 종속적 대미관계에서 벗어나 자주적 국가로서 민족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약진으로 진보정당이 뿌리내리는 날이 하루빨리 앞당겨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나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투쟁에 있어서는 항상 중요사안이 있을 때 모든 계급계층이 함께 하는 전민중적인 투쟁이 되도록 좀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미투쟁만 하는 데 따로 있고 노동자, 농민투쟁 하는데는 또 따로 있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큰 사안 있을 때 모두가 함께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성당으로 향하던 나는 문득 뭔가 먹을 것을 좀 사들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그 생각 자체가 무색함을 느껴야 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먹거리를 싸들고 찾아오는 조합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일진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그 분들 마음 속 깊이 늘 차수련님이 자리하고 있는 이상 보건의료노조의 싸움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숨이 너무 차 말씀하기조차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마다하지 않아 주신 차수련님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어서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기원하며…

"모임의 어린 성재, 다인이도 내 선생님이에요."

이현근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오감시롱 총회에서

"다음은 이천의 돈을 다 끌어 모은다고 소문이 난 박상열 송금숙 부부를 소개합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온다. 이어 송금숙이 국자를 들고 자기 소개를 한다. 이미 다 아는 사이라 소개라기보다는 자기가 사는 얘기를 한다. 신문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학원이 성공했는데 정작 본인은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나 자신들의 노력이 과소평가되고 성공 그 자체에만 주목하는 것 같아 불만이란다. 기자가 취재를 해갔지만 기사가 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어느 학부모가 기사가 난 신문을 갖다 주어서야 기사화된 것을 알았고, 이천은 좁은 지역사회라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상술에 능한 원장이라면 그런 호기를 놓칠 리가 없는데 우리의 박상열 원장은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그럴 필요 있나"고 하면서 예의 그 머쓱한 표정을 지었단다.

성장하기까지

박상열과 송금숙이 양심수후원회와 옴시롱감시롱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정말 이루어지기 힘든 우연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들의 자라온 과정이 그것을 말해준다. 박상열은 이천 토박이인데 그의 할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친일적인 인물이었다고 한다. 이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를 부자였는데 해방이 되면서 완전히 망하는 바람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빈손으로 다시 일어섰다고 한다. 어머니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표창장까지 받을 정도로 보수적인-그 당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우민정책의 책임이지만-집안에서 성장했다. 박상열은 2남1녀 중 둘째인데 '둘째'라는 애매한 관계가 오늘의 박상열의 성격을 만들었다고 송금숙은 보고 있다. 즉, 그의 부모는 박상열의 형을 장남이라고 위해 주고 여동생은 막내이고, 딸이라 귀여워 해준 반면, 그 중간에 끼인 박상열은 상대적으로 그런 사랑에 대한 소외를 느꼈을 것이고 결국 늘 허허 웃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반면에 송금숙은 2남 3녀의 막내로 이천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가난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못해봤다고 한다. 아산에서 조합장까지 하고 어선이 두 척이나 있던 아버지가 이천으로 이사 와서 한 사업이 망해서 어머니가 이천 장날 국수를 팔아서 식구들을 부양했는데 어머니가 재산 모으는 것보다는 그 돈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썼다는 것이다. 박상열의 부모가 쌀을 팔아 싼 밀가루를 사고 남는 쌀을 장려 쌀을 놓아 재산을 불려가는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금숙의 말을 빌면 "돈은 없지만 귀족 같은 집안"에서 세상물정 모르고 밝게 성장했다고 한다. 금숙은 건국대 경영학과에 진학하고, 상열은 건국대 체육교육과에 들어갔다. 건국대 이천향우회에서 둘은 처음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당시 성적이 전교 5등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었고 매번 장학금을 받았던 자신감이 자퇴를 부추겼다. 재수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1학기에 자퇴을 했다. 상열도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이천에서 학원을 냈는데 그 당시 왜그랬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고 상열은 말한다. 자퇴 후 금숙은 이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실험 보조교사로 일하고 3시에 퇴근 후 서울에 있는 입시학원에 다녔다. 학원이 끝나

면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그곳에서 자고 아침 일찍 이천의 초등학교로 출근하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날 친구와 같이 '은경' 이란 고등학교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집에 상열이 있었다고 한다. 은경이 바로 상열의 여동생이고, 금숙의 동창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둘은 급속히 가까워지고 은경의 집에 가면 상열이 마중을 나오곤 했다. 90년 11월에 둘은 결혼하고 허니문 베이비로 남수를 낳았다.

학원이 성공하기까지

필자도 교직에 있지만 둘의 이야기를 들으면 둘은 학원사업의 귀재도 아니고, 무조건 돈만을 목적으로 학원사업을 늘려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양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그들만의 철학이 있고 둘 다 건강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노력한 대가라고 보인다. 사실 공교육이 부실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교사 자녀들도 열이면 열,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필자가 바라는 것은 학원수업이 학교수업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이나 특화된 분야를 가르쳐서 시간적 ·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학교 자퇴 후 이천에서 상열이 낸 학원이 잘되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는데 누구나 다 아는 상열의 아내 사랑 때문에 -금숙은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학원을 팔고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 연고도 없는 곳에서 홀가분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었고, 또 금숙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학원을 여동생에게 넘기고 이천으로 올라왔다. 금숙은 독서실을 운영하고, 상열은 외국인 회사 지멘스에 입사했다. 그러나 독서실 운영이 금숙에게는 맞지 않았고, 회사생활도 상열에게는 적성이 아니었는지 둘 사이에 싸움이 잦았다. 당시 지멘스의 사원아파트에 살았는데 1층에 이정규 회원 내외가 살고 있었다. 이정규의 남편 김상훈 회원이 그 회사 과장으로 있었다. 이정규 회원부부가 이들의 싸움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고, 나중에는 이정규 회원의 권유로 오감시롱의 기행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오감시롱에 나오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싸움이 줄어들었다. 곧이어 상열은 회사를 그만두고 동원대 인터넷 정보과에 입학하고, 금숙은 독서실을 정리하고 원생이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학원을 인수했다. 상열이 학교에 다니면서도 회사에서 터득한 새로운 경영스타일을 학원에 응용하여 둘이서 노력한 결과 유치부만 1년 사이에 원생이 90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상열도 회사를 그만두고 학원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학원들을 재정비해서 산수사랑 왕수학 학원과 이스턴 영어학원, 그리고 작년에 개원한 에반무어스쿨이란 영어전문학원을 열었는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에게 강조하는 것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과 노력을 알아주었으면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원을 오래하다보니 학부모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남수와 지연이가 커가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에 대한 고심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정화된 부부

두 부부 대해서 옴시롱 식구들이 다 아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금숙과 상열이 처음 오감시롱 기행에 왔을 때 회원들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몰라서, 아니 보통 친구들의 모임 같으려니 생각해서 저녁에 고스톱을 치려고 잔돈들 한주머니 바꿔왔다고 해서 파안대소했었다. 서울을 출발해서 차안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조창손 선생님, 김선명 선생님, 고 이종환 선생님이 감옥에서 몇 년 몇 년 할 때는 겁부터 났나고 한다. 점심도 안먹고 갔는데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그런 "살벌한" 얘기들만 나오자 잘못왔나 싶기도하고 심적으로 무척 놀랬다고한다. 그런데 간첩이란 분들도 그렇고 기행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분위기가 그야말로 "물흐르는 듯한 가운데 쓸렸다"는 것이다. 시와 노래의 밤에 처음 갔을 때도 보통의 콘서트로 생각해서 하이힐을 신은 정장으로 참석했었다고 한다. 자기 부부는 지금도 후원회 모임과 오감시롱 모임에 참석했다 오면 "그 동안 쌓였던 욕심이 씻겨 깨끗해진" 것을 느낀단다. "모임에 오는 어린 꼬마 성재, 다인이도 내 선생이에요." 라고 금숙은 말한다.

학원을 하면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항상 마음에 걸렸던 아이들(남수와 지연)이 다행히 부모를 잘 이해해주어 대견하다고.

이른바 민혁당사건 가족대책위 면회투어기

최진미 이른바 민혁당관련 양심수 최진수씨의 여동생

2002년 12월 마지막주 토요일과 일요일(1박2일).

이른바 민혁당사건 가족대책위에서는 몇 달 전부터 한달에 1번씩 전국 여러 곳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족(동지)들을 만나러가는 면회투어를 시작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번도 그 면회투어에 함께하지 못했던 나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면회투어에 참가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던터였다.

허걱~가는날이 장날이라고! 전날 점심때 먹은 고기가 과했는지, 그만 체하고 말았다. 그것도 심하게. 밤새 장을 쥐어짜는 고통에 시달린 나는 도저히 면회투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마음에 깜빡잠에도 악몽을 꾸며, 그렇게 새벽을 맞았고 못갈 것 같다는 내 전화에 마누라와 동생의 차이(?) 운운하는 김소중님의 채근에 발끈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약속장소인 성남시청 앞으로 향했다.

오늘 면회투어를 함께 하기로 한 김소중(하영옥의 처), 박윤희(임태열의 처), 이정태님을 만나 예정 시간보다 30여분 늦은 6시30분, 1박2일의 여정을 시작했다.

부산에서 대전교도소로 직접 오신 이의엽님과 반갑게 만나 첫 면회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일정을 바꾼 걸 몰랐던(원래 계획은 서쪽을 먼저 돌기로 했었다가 동쪽으로 바꿈) 하영옥 오라버니께서는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 대기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 운동하다 말고 우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하영옥 오라버니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안과 밖, 우리 모두의 얼굴엔 행복의 미소가 넘쳐났다.

대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희망적으로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하던 짧기 만한 면회시간. 어느 무더운 8월, 통일사업 끝나면 찬바람 몰고 오라버니께 면회를 가겠다고 약속한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칼바람이 불어서야 면회를 오게 되어 오라버니께 애정 섞인 꾸지람도 들었다. 김소중 언니와 하영옥 오라버니의 애절한 눈빛을 못 본척하며 짧은 면회를 끝냈다. 오늘의 일정을 다 소화해 내려면 아쉽지만 짧은 면회를 할 수 밖에…

간간이 흩날리는 눈발을 맞으며 대전교도소를 나와 도착한 곳은 전주교도소.

더욱 젊어진 임태열동지! 해맑게 빛나는 눈동자엔 반가움이 그득하다.

역시 대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조금은 건강이 좋아졌다는 김 대원 동지와 과자내기 족구시합을 하는데, 번번이 태열씨가 이겨서 김대원 동지의 과자를 뺏어먹는다는 얘기를 반갑게 들었다. 전주교도소 면회는 임태열동지를 만난 기쁨도 크지만, 김대원 동지의 건강과 관련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면회가 되었다.

새벽부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다들 밥 먹는 걸 잊었는데, 광주면회시간까지 여유가 조금 있어 음식 맛있기로 소문난 전주에서 맛난 점심을 먹었다. 배탈이 난 나는 죽밖에 먹을 게 없었지만… 쩝.

3시를 넘겨 광주에 도착하여 오늘의 마지막 면회자인 최진수씨(나의 오빠)를 만났다.

가족대책위에서 면회투어를 오는 게 가장 반가운가 보다. 징역살이도 얼마 안 남았다며 여유만만 한 모습.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에 유일하게 만기출소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일거라며 억울(?)해 하는 엄살도 부린다.

개인적으로 오빠의 만기출소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보니,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지난 2000년 8월. 눈만 뜨면 오빠를 잡아가두고는 5일 동안 면회한번 시켜주지 않던 내곡동 국정원 앞으로 달려가 밤이 이슥할 때까지 오빠를

보여 달라며 온 가족이 울부짖었던 그날들의 아픔이 다시금 코끝을 시큰하게 한다. 에잇! 다시는 이런 아픔이 누구에게도 없어야 할 텐데…

오늘의 면회 일정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의 안착지인 부산으로 향했다. 광주에 볼 일이 있다는 이정태님과 헤어져서.

부산에선 이의엽씨 부인인 유성경님과 두 아이들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고, 모두 함께 용호동에 있는 유명한 해물탕집에 가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근처 광안리 바닷가로 나가 밤바다도 잠깐보고, 생맥주도 몇 잔 들이켰다.

달콤한 잠을 자고, 체력을 보충한 일요일 아침. 유성경님이 정성껏 끓여 준 떡국으로 아침을 먹고, 박경순 선생님이 계신 부산교도소로 출발!

아니, 이게 왠일! 우리 차가 아무리 공사장 앞에다 주차를 했다고 펑크를 내놓다니!! 부산사람들 인심이 사납다고 투덜대며, 꼼짝없이 30분 이상을 투자해 발통(바퀴를 경상도쪽 사람들은 발통이라고도 부름)을 고쳐서 부산교도소로 갔다.

박경순 선생님의 별명이 6시 5분이라는 말을 미리 들었던 우리는 박경순 선생님과 면회하는 내내 6시와 6시 5분 사이를 오가는 선생님의 고개를 보며 속으로 웃었다. 대다수가 박경순 선생님을 처음 뵙는 우리들은 가장 궁금한 건강을 여쭤보았고, 괜찮다고 활기차게 답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가슴시린 안도감을 표했다.

바깥정세에 대해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정세교육(?)과 정세분석(?)을 들으며, 면회 간 우리들이 더 힘을 얻게 되었다면 지나치다고 하실까? 감옥에 계신 선배님들께 면회 가 본 분들, 제 말이 맞죠?

부산에서 안동까지는 제법 먼 거리이다. 부산에서 저녁때 약속이 있으신 이의엽님은 도저히 시간이 허락지 않아 다음 면회투어인 안동행을 접어야했고, 그래서 남은 네 명(박종석님, 김소중님, 박윤희님, 나)이 부지런히 안동을 향해 구마고속도로를 달렸다.

오늘도 시간이 빠듯한 관계로 식당에서 점심 먹기는 힘들고, 이것을 예상한 유성경님의 세심한 배려인 김밥과 음료수, 과일, 과자 등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3시가 조금 넘어 안동에 도착 한 우리는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고, 김경환 오빠를 면회할 수 있었다. 서울구치소에서 안동교도소로 이감가기 전인 2001년 초. 오빠를 마지막으로 본 지도 어언 2년이 지나가고 있네 그려~

우리 오빠와 대학 친구인 경환 오빠는 내가 어렸을 적부터 알게 돼서 그런지 늘 내가 어린애 같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목소리가 높지 않고, 조용조용 물 흐르듯이 이야기하시는 게 변함이 없어 보인다. 좀 더 눈이 깊어지신 것 같기는 한데….

역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관계로, 서로 인사하고 안부묻고 전하는 것이 빠질 수는 없지. 새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 새해에는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 모두가 석방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나누고, 출소하면 무슨일을 하실거냐는 질문에 글쓰는 일을 계속 하실거라는 경환 오빠의 답변에 벌써 내 머릿속엔 넓은 책상앞에 노트북을 켜놓고 글쓰기를 열심히 하실 오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가끔씩 장난치는 일지와 승지 때문에 글쓰기가 끊기기도 하겠지???

안동을 마지막으로 우리가족대책위의 공식 면회투어일정은 끝났지만 안동을 처음 와본 우리들은 그 유명한 하회마을을 잠깐이라도 둘러보고 가기로 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므로…

하회마을 강둑 길을 걸으며 우리는 지나 온 세월과 앞으로의 희망을 얘기했다. 모두가 평안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하는 소망이다.

내 민족, 내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주와 평등, 통일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젊음을 바쳐왔던 선배님들! 사랑하는 나의 오라버니들! 동지들!

그 따스한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새해 첫날의 산행기

김창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2002년 12월 31일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이다.

2002년은 정말 의미있는 한 해였다.

2002년의 대미를 장식한 노무현후보의 승리, 월드컵 4강진출, 남북을 잇는 경의선공사, 아시안게임 북한선수단의 참가 등은 물론 심효순, 신미선양의 참사와 같은 큰 슬픔도 있었다. 종무식을 마치고 촛불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나갔다.

광화문 부근은 바리케이트를 친 전경버스,전투경찰, 촛불시위에 참여하기위해 나온 인파로 술렁 거린다. 대회장소인 교보문고 정문 앞 도로는 끝없는 인파와 각 단체의 깃발들로 장관이다. 정말로 미국과 전 세계에 우리민족에 자존심을 보여주기위해서 모여든 시민들에 물결로 넘쳐나고 나 또한 이들과 한민족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서서히 주위가 어두워지고 모두 준비해온 양초에 불을 밝힌다. 이 촛불이 불쌍한 효순, 미선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소파개정에 큰 불꽃으로 타오르길 기원하면서 집회 도중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동지들과 합류하였다.

후원회의 듬직한 일꾼인 일규가 받쳐든 보라색의 양심수후원회 깃발아래서 소파개정, 살인미군처벌, 부시 사과를 외치면서 서서히 달아오르던 열기는 우리나라의 공연으로 절정을 이룬다. 대사관 진격투쟁을 준비하는 동안 강석이와 강산이를 먼저 보내려고 대열을 이탈해서 차를 기다리는데 좀처럼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 할 수 없이 경복궁역까지 가서 겨우 택시에 아이들을 실어보내고 다시 광화문 사거리로 돌아오니 어느새 대회는 끝나고 각 단체별로 정리집회중이다.

20여명의 우리 양심수후원회 동지들은 이 시대 영원한 청년인 권회장님의 말씀과 새해 각오를 다지는 각자의 소감을 듣고 힘찬 노래를 끝으로 내일을 기약하였다. 일부 회원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린 새해를 맞기 위해서 하계동의 재영씨 집으로 향했다.

혼자 살기에는 무지 넓어 보이는 아파트는 예상외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재영씨가 정성껏 준비한 술자리와 다과상을 놓고 대화를 나누다가 산행을 위해서 나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잠깐 단잠을 자고 눈을 뜨니 3시 반. 영하의 추위속에 정말로 가야만 하는가 하는 갈등이 마음 한 구석에서 일어난다. 현익이형, 이창희 간사와 택시를 타고 도봉산으로 향하는데 정말로 내리고 싶지 않았다.

도봉산입구. 도착해서 천천히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정말로 춥다.

우린 산행을 시작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산을 향하는 젊은 친구들과 동행을 하였다. 한 밤 중에 산을 오르는데 렌턴 하나도 준비 안한 젊은 친구들과 함께.

산이 점점 가파라지고, 눈이 조금씩 밟힐 무렵 그들과 자연스러운 이별을 하고 우린 다시 걸었다. 드디어 1차 목표인 마당바위다. 넓고 평평한 바위에서 휴식을 하면서 현익이형이 준비해온 가스버너에 노가리를 굽고 사과를 깍아서 쓴 소주를 넘긴다.

너무 추워서일까 정말 소주를 마신 후에도 뜨거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현익이 형은 라면을 끓여야 하는데 코펠을 잊고 왔다며 아쉬워한다.

정말로 뜨거운 라면국물 생각이 간절하다.

얼마만큼 쉬었을까 체온이 내려간다. 우린 다시 더 높은 곳을 향했다.

어느덧 주위는 서서히 밝아지고 우린 전망 좋은 곳에서 도봉산 정상를 조망하고, 새해의 일출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마당바위로 내려왔다. 추위와 싸우면서 얼마를 기다려도 새해 첫 태양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일순 정산부근에서 환호성 터지고, 다음에는 8부능

선에서 환호성이 들려온다. 역시 고생해서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그만큼 빨리 일출을 맞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드디어 내 눈에도 아련한 산줄기위로 한 줄기의 붉은 선이 보인다. 정말로 멋진 사나이 현익이형의 '광야에서' 노래와 함께 떠오르는 태양. 아! 정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다.

일출하면 동해안이나 이름난 산에서 맞이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서울의 외각에 있는 도봉산의 일출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바라던 일출을 맞이하고 내려가는 하산길은 너무도 즐거웠다.

산을 내려와서 도봉산의 명물인 순두부에 동동주를 먹으며 새해 첫 날에 산행을 마무리하였는데 양심수 후원회 회원들과 함께 보낸 12월31일과 1월1일.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2004년 신년 산행에는 좀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알립니다

2월 산행

새로운 해의 기운을 가득 담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자주와 평화를 노래합시다. 이번 산행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언제: 2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어디서: 우이동 그린파크앞

갖출 것: 회비 3000원, 도시락 등

오는 편: 6번, 28번 종점

회원교육강좌

한상권 교수님의 '역사교실'이 연이어 〈친일파 청산〉의 주제로 열립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낙성대 만남의 집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내리세요!)

감사드립니다

● 남민전사건으로 옥고를 치루신 박석삼 회원님께서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로 1,500,0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쓰겠습니다.

●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 집'에서 낡은 차량 판 돈 488,00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일파 청산 – 현재 및 미래의 문제

정윤성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단국대 법사회학회 회원

처음 맞이하는 역사강좌. 그 설레는 기분을 무너뜨리는—같이 간다고 했던 후배 두 명의 배신을 등에 업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두 번째 찾아가는 낙성대 만남의 집. 올해 처음하는 역사강좌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기분은 이내 좋아졌다.

오늘의 주제는 '친일파 청산'.

먼저 비디오를 보았다. '반민특위 - 그 승자와 패자'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것은, 소설 태백산맥에서 반민특위가 결성되었는데 이승만을 배후로 하는 경찰들이 습격해서 해산되었다는 정도로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비디오를 보면서 보다 자세한 정황을 알게 되었고, '승자'인 살아남은 친일파 한사람의 변명이 분노와 함께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다. 근현대사 여성 최초의 좌우합작 운동단체의 중심이었다는 이화여대 총장을 맡았던 김활란, 민족지라고 기술된 조선일보 · 동아일보, 계몽적이며 자주사상을 고취시켰다는 1910년대의 대표적인 작가 최남선, 이광수, 또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김동인, '국화 옆에서'로 유명한 서정주, 항일 독립의식과 한민족의 심정과 상황을 잘 표현했다는 홍난파, 현제명 등의 적극적 친일행각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살펴보며,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가 어느 정도 엉터리인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이 될 뻔한 이회창의 아버지 이홍규의 친일행각을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고, 정말 큰일날 뻔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비디오의 내용과도 맞물리는데, 친일파 청산을 위한 움직임과 좌절을 살펴보았다. 반민특위 등의 친일파 청산의 움직임은, 효율적인 점령정책에 따라 친일파를 다시 등용한 미군정과 친일파 집단을

등에 업어 정권을 장악한 이승만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그리하여 친일파는 단 한 명도 처벌되지 못했고, 그 후 정치권은 물론 경찰 · 군인 등의 국가 요직에 대다수 남게되어 현재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친일파 청산의 주장은 빨갱이 주장이라든가, 그 때 친일하지 않은 사람 없다는 주장, 친일파 청산은 과거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이른바 10가지 궤변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반론을 공부하며 오늘 강의를 마쳤다. 친일파를 청산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 또 현재 당면한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친일파 청산은 현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한상권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이 짧음을 다시금 느꼈다.

이어진 뒤풀이시간에는 노무현 당선과 관련된 정치 이야기, 촛불시위에 관련된 범대위 이야기, 양심수 후원회의 앞으로 중점과제, 범민련 · 인간의 보수화 · 민족성 등 진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

초보 후원회원이지만, 후원회의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한 것보다 더 큰 배움을 안고 가는 것 같다.

다음 역사강좌가 기다려진다.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 정책, 그 공격적 기조의 불변이 문제이다

김민웅 재미언론인, 길벗교회 목사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 정책은 그 기본이 북한의 무장해제와 이에 근거한 지배전략이다. 보다 근원적인 전략 의도는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허리를 겨냥할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패권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 직접 대치하는 것은 분명 부담이 있기에, 미국이 일단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는 〈북한 위협론〉이다. 중국 공략의 징검다리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 위협론〉의 논리는 간단하다.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무장체제가 미국과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니 이에 제동을 걸고, 미국이 제안하는 방식대로 북한의 기존질서를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위험요소의 거세 작전이라고 하겠다.

부시정권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무장해제와 지배전략

그 방식의 핵심은 김정일 체제의 방어능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약소국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인 최소한의 정당방위능력조차도 침략적 공격능력이라고 비난하는 국제적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시정권의 이해와 궤를 같이 하는 독점 대자본의 대변자인 타임과 뉴스위크는 2003년도 벽두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보다 더 위험하다는 논조로 카버 스토리를 꾸몄다.

이러한 고립작전을 펼치면서 미국은, 그 실체가 분명치 않은 이른바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의 구상을 지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대북 압박용 국제공조〉 발상이다.

북한은 이렇게 '국제사회의 요구'로 포장된 이 미국의 구상에 순종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의 양자택일만 남은 셈이다. 이러한 틀 속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과의 패권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차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미국의 희생 제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의 희생〉은 결코 〈남의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의 운명이 자칫 전쟁의 화마에 끌려들어갈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열강정치에 또다시 휘말려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한다.

2003년 1월 들어 부시정권이 대북 대화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듯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북한의 굴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

이른바 〈북 핵 위기〉라는 것도 미국의 대북 특사 제임스 켈리가 '대화를 내걸고 방북한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나 북한 측의 공식적인 인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터져 나온 사태이다. 한마디로 북 핵 위기는 한반도 긴장고조와 대북 해체전략을 위한 미국의 작품이다.

미국식 대화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 부시정권의 대화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지략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공과 대화를 초점 없이 오가는 듯해도, 그것은 그때그때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른 외양적 제스처의 차이에 불과할 뿐, 그 본질에 있어서는 북한의 주권을 유린하고 그 체제 유지력을 분해하면서 패권적 기조를 대세로 만들어 한반도 전체에 대한 군사적 접근을 관철하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즉,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 자세는 북한만이 그 상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지배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위협적 공세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하루 속히 소위 한·미 공조라는 자해적 선택을 거부하고 민족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핵무장으로만 따져도 미국 자신이야말로 세계평화의 최대 위협이며, 핵 확산 방지를 내걸고 실제적으로는 핵무기 독점을 지향하면서 핵무기 철폐운동을 묵살하고 있으니, 이같은 미국의 현실은 그 패권적 제국의 위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제국의 미소는 믿을 바가 못 된다. 제국이 무기를 내려 놓고 웃으며 함께 마주 하고 있다 해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약소국의 정직한 현실이다.

부시정권의 대북 압박정책은 한반도 전체를 위협

제국의 선의(善意)란 없다. 이에 대하여 일체의 환상을 갖지 말아야,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확실한 대응과 함께, 민족 전체의 운명을 지켜낼 수 있는 방책을 도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응이 너무 극단적이 아닌가 하지만, 생존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국가와 체제가 선택하는 방식으로서는 도리어 신중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침 조약 체결이라는 제안을 통해 한반도에서 지난 50여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 현실을 조성하자고 일관해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리어 이에 대하여 부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 부시정권이다. 누가 평화를 원하고, 누가 전쟁을 지향하고 있는지는 이로써 명백해진다.

지난 해 말,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이른바 〈맞춤형 봉쇄전략〉 구상이 흘러나오자, 김대중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역 봉쇄 전략〉 발언을 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대북 포위망에 일정한 균열을 냄으로써 전쟁으로 가는 상황에 방어벽을 설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여론 조성에 열을 내던 부시정부와 미 언론들은 한국의 저항에 직면하자 일단 멈춤으로 사태를 관망국면으로 전환했다. 대북 압박정책의 근본은 바꾸지 않고 대화의 형식은 취하는 전술적 대응을 한 것이었다.

부시정권은 북한에 대한 침공 의사가 없으며 대화의 뜻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의 핵무장 프로그램 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전히 내걸었다. 불가침 조약 체결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채, 북한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면 이야기를 시작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라는 것도 상호 관심사의 교환과 논의,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 쪽에는 제네바 합의 파기와 관련해서 일체의 책임이 없고 또 거론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틀 속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규칙 위반에 대한 북의 이실직고와 미국의 대북 통제강화'에 다름이 아니다.

미국, 한반도 위기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왜곡 극심

미국은 '잘못된 또는 악의적 행동에 대한 대가나 보상은 없다'면서 북한이 핵 감시체제 원상복구와 핵동결조처 유지를 한다고 해서 경제적 원조나 기타 체제보장과 관련된 협상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과 논리는 핵문제의 근본과 관련해서 사태를 완전히 왜곡하고 오도하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핵발전소 건설을 통한 에너지 자체 개발이라는 주권국가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했을 때에는 그 포기로 인한 손실에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핵무기 개발 우려를 인정하고 핵 동결조처를 취했다면, 에너지 문제해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상대에게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쪽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의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를 대가, 보상 등의 말로 규정하려는 것은 결국 미국이 북한의 경제개발에 근본 동력인 에너지 문제해결을 파탄내고 그에 더하여 핵 공격을 포함한 선제공격전략 철회에도 불응함으로써 대북 정책의 본질이 철저하게 외부적 압박에 의한 붕괴전략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자체개발이라는 주권적 권리 포기 요구에 대한 책임 마땅

만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미국은 당연히 핵동결 조처가 재유지되는 경우 이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밝혀야 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정책 철회를 명시한 국제적 협약을 만들어내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부시정권은 북한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함으로써 이것을 대북 공격 의사가 없음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으려 든다면, 이와 동일하게 북한도 핵 투명성을 위한 사찰 수용은 거부한 채 '핵무기 개발 의사 없다'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미국 부시정권은 자신의 행동방식에 적용되는 논리와 동일한 가치를 북한의 자세에 대하여 부여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서로 문제해결에 도달할 수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 부시정권은 북한의 핵 동결조처가 국제

적 구속력이 있는 틀 속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대북 공격 정책의 철회를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식으로 확정해야 상호 동등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에 이를 수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자체 개발이라는 주권적 권리를 포기한 북한에 대하여 그 포기를 요구한 당사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며 그럴 의사가 없다면, 더 이상 북한의 에너지 자체개발에 장애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제네바 합의 파기의 책임을 북한에게 두려는 근거가 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 발언은 현재까지 그 어떤 증거로도 확인된 바 없으며, 그 발언의 진정한 의도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핵 공격까지 가능한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 경우 핵무기 개발까지를 포함하는 정당방위 조처의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확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자신의 체제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변 환경의 평화적 개선에 노력해왔다는 점을 주목할 때 핵 대결을 자초하게 될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 이외에는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도발유도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 있다. 자꾸 건드리고 이리저리 목을 조르다보면 상대가 저항하게 되어 있고, 이 정당 방위적 저항을 공격적 행위로 매도하면서 전쟁개시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것에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압박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앞으로도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조건과 기회만 되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은 언제든 배제할 수없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이미 북한에 대한 공격이 정당하다는 여론과 논리를 상당한 정도로 확보한 상황이며, 이를 근거로 대북 공격의 기습성과 전격성을 발휘할 수도 있음에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

전쟁 고조 여론 조성전술은 그때그때 즉시 강하게 제동을 걸어야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따라서 그 즉시즉시 강력하게 대처하여 그 기세를 그 시점에서 최대한 꺾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기도가 어느새 하나의 기정사실로 굳어져 전쟁발발의 환경이 강화됨으로써 이를 되돌이키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1917년 이후 1936년에 이르는 근 20년의 세월 속에서 1차대전이 끝난 다음,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깊어지고 파시즘 세력의 집결이 가속화되면서 하루하루 전쟁의 길로 치달았던 역사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다행히 남한 내에 전쟁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그간 심화됨으로써 사태의 대처능력이 달라지긴 했으나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공격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는 미국 부시정권의 현실을 직시하면, 정세를 안이하게 볼 여력이 없다.

미국의 대북 압박 내지는 봉쇄정책의 근본을 문제 삼고 이를 거부하는 노력과 접근이 없고서는 우리의 그 어떤 중재나 주도권 발휘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반조성에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오늘날 한반도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반전평화운동이 미국 부시정권의 제국주의적 야만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는 노력과 결합함이 없이 추상적 방식으로, 또는 전쟁에 대한 포괄적 반대로 관념화될 때에는 전쟁의 마수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대응방식에 교묘하게 뻗쳐 들어와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의 각종 변형된 선택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반전평화 운동은 오늘날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야만과 대치할 때 의미획득

실로 오늘의 한반도 현실에 당면한 전쟁의 위협을 소멸하고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패권전략을 무력화시키려면 우리의 모든 반전평화운동의 역량은 미국 부시정권의 대한반도 정책이 가지고 있는 위선과 기만, 그리고 노골적이거나 또는 은폐된 폭력성을 그 대상으로 삼아 남북 민족 전체의 명운을 걸고 미국의 대(對)한반도 지배정책을 해체,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이 글은 '민중의 소리' 인터넷방송국에 실린 기고문을 퍼온 것입니다. 저자인 김민웅 목사님은 [코리아 타임스] 기자, [미주동아] 기자, 뉴욕 목요기도회 총무, 뉴욕신학대 강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미국 뉴저지에 있는 길벗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내의 독자들을 위하여 [한겨레신문], [한겨레 21], [시사저널], [말], [내일신문], [신동아] 등에 칼럼을 꾸준히 기고하고 계십니다.

더 많이 학습하고, 더 많이 사색하고, 더 많이 지속가능한 실천을

이용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누군가 소식지 원고 마감을 앞두고 돌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덕분에 때마침 옆에 있던 내가 원고를 떠맡게 되었다. 이미 소식지를 통해 글을 두 번이나 써본 나의 글쓰기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절실히 알고 있는 나로서는 많이 망설일 수밖에 없었지만 어차피 2003년이라는 새로운 시공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3년 내 개인의 삶의 화두는 칩거(蟄居)이다.

칩거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집에서 죽치고 사는 것' 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설정한 칩거와는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니지만 큰 틀에서 차이는 없다고 본다. 혹자는 나에게 반문을 할 것이다. '너 뭐가 그리 잘났다고 칩거는 칩거냐, 니가 현자라도 돼, 꼴깝하지마' 라고 매섭게 다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그렇다면 오해는 풀자. 내가 설정한 칩거는 그간 약 3년 간의 생활을 돌이켜 본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사회적인 관계가 더 넓어지면서 많은 사람들과 사귐을 하면서 영역이 넓어졌건만 마음의 공허함은 더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아무리 무엇을 열심히 해도 이 공허함을 메우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칩거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즉 칩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삶의 목표를 더욱 더 분명히 하여 가고자 하는 길에 과녁을 정확히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다. 요즘 들어 내가 왜 지금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식을 망각할 때가 있다. 더 많이 학습하고, 더 많이 사색하고, 더 많이 지속가능한 실천을 하고 싶다. 이런 노력들을 옮기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실천사항을 정해보았다.

첫째, 매주 토요일 탑골공원 앞의 국가보안법 폐지 거리캠페인을 열심히 참석할까 한다. 대학 때 내가 후배들과 간부일꾼들에게 주장하던 말이 새삼 기억난다. "집회를 참석하고 실천투쟁을 하러 다니는 것은 시간이 남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거침없이 외치던 당돌한 목소리.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민망하고 위선자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런다고 내가 당장 달리질 건 없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 그리고 매 시기 어디에선가 정의를 위해 조국의 통일을 위해 항시 우리의 민중은 항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새겨두고 견고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둘째, 도심 속의 여정을 자주 가져볼까 한다. 이 여정을 위하여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자주 갈 계획이다, 물론 이는 나에게 새로운 건 아니다. 늘상 각종 전시회를 보기 위하여 미술관과 박물관은 자주 가곤 했다. 그러나 지금 의미는 달라질 것 같다. 인격의 수양을 위한 방편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의 옛 선비는 학문의 완성과 인격의 수양을 위하여 광범위한 예술을 향유했다. 사실 미술관을 차분하게 가본사람들은 알지만 거기서 머무는 동안 그림에 몰입되는 순간은 아무생각도 없어진다. 그리고 감상을 마치고 나서는 길은 뿌듯한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양심수후원회 회원들도 휴일을 이용하여 미술관과 박물관을 자주 가보았으면 한다. 그것은 고상하거나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자의 입장에서 미술노동자들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예술의 본래적 의미는 기술이며, 실용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볍게 즐기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역사교실이다. 작년에도 부지런히 다녔다고 자신하지만 그래도 웬지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전에도 역사교실에 대해서 소식지를 통해 언급하고 있지만 실천을 재촉하는 힘이 되고 있다. 예술경영이라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려는 나에게 많은 깨우치게 하는 건 사실이다. 칩거의 기간동안 좋은 길잡이의 역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편지쓰기이다. 전에는 내가 생각해도 참으로 많은 편지를 썼다. 물론 대부분이 별 내용 없는 짧은 편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보내는 기쁨과 받아보는 기쁨은 아무리 정보통신기술이 가져다 주는 편의를 우리는 느끼지만 촉촉한 펜으로 써서 우표를 붙여 보내는 건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않는 즐거움이다.

쓰다보니 참된 삶 같지도 않고, 등 따시고 배불러서 떠드는 초쳐먹는 소리인 것 같다. 하지만 평생의 의식 있는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통일된 조국이 현실화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곰곰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젊은 한 때의 이 시간이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다. 칩거 기간동안 많은 지인들과 따뜻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이용준님은 현재 안양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아침에

●이 그림은 인터넷 방송국 '민중의 소리' 기자로 일하는 김도균 회원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2002년 12월

01 종묘공원에서 국가보안법 장례식 준비위원회 주최로 2002. 국가보안법 장례식 대회행사가 진행되다. 한충목 장례식준비위원장 사회로 오종렬 상임공동준비위장 대회사. 정현찬 국가보안법폐지투쟁 연설, 권영길 대표의 폐지촉구 연설, 한상렬대표의 대선후보에 보내는 메시지 낭독 - 송경동 시인이 조시낭송 한총련 문예일꾼들의 문예공연 , 우리나라 노래팀의 조가와 율동. 윤경희 한총련 10기 의장권한 대행의 결의문 낭독등이 있었고 국가보안법 법전을 불태우며 6.15 공동선언 실현 고무풍선을 날리고 포퍼먼스도 있었음. 마치고 마로니에 공원까지 평화행진 양심수후원회원들 장례식 행사시간 전부터 종묘공원 입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캠페인 벌이고 깃발 들고 행진에 참여, 고광희, 이창희, 변의숙, 이승미, 김숙희, 김범용, 권오헌과 함께 함.

- 광화문 교보문고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추모 및 소파개정, 부시사과 등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이틀째 촛불시위 벌임.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이틀에 걸쳐서 김장 60포기를 담금. 낙성대에서 계신 문상봉선생님, 김영식선생님과 성공회 나눔의 집에서 주관하는 서울 관악자활후견 기관에서 보내주신 도우미아주머니와 고 이재문 선생님 사모님 김재원님과 한수정, 이창희 등이 함께 함.

02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열린공원에서 '살인미군 회개촉구를 위한 생명평화 단식기도회' - 철야단식에 들어가다. 전국에서 온 70여명 신부와 수녀 20여명 등 150여명이 함께 노상미사 올림. 김영현 신부(부산교구) 사회로 주한미군철거가 노래부르고 문규현 상임대표 말씀. 김벽식신부(안동교구) 등 조성만열사여!등 구호와 -전종훈신부 성명서 낭독등으로 이어짐. 전종훈, 문규현 신부 등 10여명 삭발투쟁도 있었음.

-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방미투쟁단 (단장 한상렬목사) 11시45분 인천국제공항 국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으로 떠남. 나리다 공항 거쳐 오후 3시30분 (현지시간) 존 F.케네디 공항도착 방미투쟁 벌임.
- 4시부터 서명운동 6시부터 촛불시위 교보문고 앞 여중생 추모촛불시위 이어짐. 마치고 열린시민공원으로 행진- 경찰과 충돌. 우회로거쳐 이동. 아침이슬 등 부르며- 이날 이정현씨 출연 격려

03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KNCC, 교회와 사회위원회등 공동주최로 '부시공식사과와 SOFA 전면개정촉구 KNCC 긴급기도회'를 열다. 김근상 교회와 사회위원회 원장 사회로 나핵집목사 기도 문대골목사 말씀 오충일목사 이문숙 이명남 목사님 등 SOFA개정등 촉구 발언. 이점용목사의 선언문 낭독,축도 등이 있은 다음 미대사관으로 평화행진 했으나 조선일보사 옆에서 경찰의 제지로 정리집회하고 해산.

- 16대 대선 첫 TV합동토론회 열리다. 북핵문제와 관련 이회창후보는 경제수단과 연계해야 한다고 했으며 노무현 후보는 압력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고 권영길 후보는 미국의 북핵위협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
- 김대중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군궤도차량 여중생 숨진일과 관련 이번일을 교훈삼아 한·미 주둔군 지원협정 개선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도 그러나 범대위 등에서는 개선이아니라 전면개정 촉구함.

04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세제스룸에서 민화협, 중앙일보, SBS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기획전 고구려!-고분벽화시사회 열다. 이 기획전은 코엑스에서 12.6~3월말까지 열린다고 함.

- 전국대학생 법학과 공대위는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족일보 조용수사장사형판결 이회창후보 규탄 및 국가보안법 철폐촉구 법학과 대학생선언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사법살인 규탄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으로 옥고 치루셨던 전 단국대 정수일교수님개서 후원회비로 30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옥중에서 서역사 실크로드 등 많은 저술을 하셨으며 지금도 학문탐구에 열중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대위 방미투쟁단은 (현지시간 3일오후) 미국 뉴욕맨해튼의 타임스퀘어에서 두여중생 영정과 사고현장 사진 등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임. 방미투쟁단은 매일같이 항의시위 기자회견. 집회를 하고 있음.
- 지난달 29일 국제 원자력기구가 우라늄 농축을 통한 이북의 핵개발문제와 관련 새핵개발계획의 폐기 및 관련시설에 대한 시찰수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일과 관련하여 이북의 백남순외무상은 IAEA이사회가 조선을 고립 압살 시키려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것에 실망을 느낀다며 IAEA결의안을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4일보도.

05 서울대병원 5층 19호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신 유기진 선생님 문병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은 12.2일 위암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후원회 소식 134호 참조)

-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의 워커힐 후원의 밤 행사와 관련 해외통일운동 활동가 초청에 관련 법무부가 불허조치한데 항의하고 재고를 촉구하다. (이규재, 권오헌, 이수연)
- 4월혁명회 월례발표회(한상범 교수강의) 겸 4회 민족

학교졸업식이 향린교회에서 있었음.

- 인천지방법원은 부평 미군부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던 정아무개씨 등 대학생 2명에게 대학생신분으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 민가협 451목요집회 열림.

06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 비폭력 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등 7개단체 공동으로 '남북교류 협력 가로막는 유엔사(미국)의 간섭규탄 기자회견 열다. 김승국 사회, 오종렬 여는말, 규탄발언 민경우, 기자회견은 낭독 윤영전씨 등 으로 진행.

- 동자동 백남의지제작소 방문 정순덕선생 의족제작 의뢰하다. 지난해에도 의뢰했었으나 정선생님의 신체조건이 의족을 착용하기 어렵다하여 유보되었으나 이번에는 환자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제작하기로 승락했음.
- 홍익대, 서울대를 방문 한총련 대의원으로 정치수배 당하고 있는 학생을 만나보고 그어려움과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듣다. 한총련 이적규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고 부배조치해제를 절실히 느끼다. (권오헌)
- 서울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방송, 문화예술인들이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평결 규탄 및 소파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 자리에서 영화감독 박찬욱, 류승완씨등이 소파개정촉구를 위해 삭발을 하다.
- 여중생범대위 방미투쟁단은 (현지시간 5일) 미국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사망 여중생을 추모하고 부시사과와 소파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 서울 삼성동 코엑스 틀별전시장에서 '특별기획전 고구려!평양에서 온 고분벽화와 유물' 개막돼 내년 3월 5일까지 열리게 되었다.

07 양심수후원회 집행부 주례모임 - 김장나누기, 결산관계, 134호 후원회소식 발간 문제 시와노래의 밤 송년모임 회원연락 등 논의하다 (송착학, 이창희, 고광희, 권오헌)

- 2시 종묘공원에서 '재판무효 부시공식사과 SOFA전면개정 미국의 오만한 전쟁책동 중단을 위한 전국 대학생5차행동의 날' 집회열다. 윤경희 10기한총련의장 권한대행 등 규탄 연설.
- 4시 종묘공원에서 미군장갑차희생 여중생범대위 주체로 '자주적인 나라 만들기 촛불인간 띠잇기 대회'가 4,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림. 손미희 사회로 대회사 문정현, 우리나라공연, 오종렬 정치 연설등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최병모) 부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민주노동당부대표) 등 낭독 마치고 지도부 선두로 광화문으로 행진 광화문사거리에서 30,000여명으로 늘어난 촛불시위대 미대사관 앞까지 진격 즉석집회를 열다.
- 양심수후원회원들 탑골공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석방 토요캠페인 벌이고 촛불행진에 합류하다. 행진마치고 열린 시민공원 사제단 농성장 격려 방문하다. 유선화, 이상엽, 이지숙, 모지희, 신준철, 신다인,이승미. 변의숙, 김현의, 송창학, 김숙희, 박지윤, 김미성, 왕준영, 이창희, 권오헌 등 함께 함.
- 김도균회원 할머님께서 6일 타계하시어 오늘 수유리 천주교회로 문상 다녀왔습니다. 고인은 8일 발인 벽제에서 화장하여 모시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08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이 주관하는 한상권교수의 현대사강좌 제10강 '1948. 4.3 민중항쟁편' 강의가 있었음. 30여명이 함께 눈 내리는 창가에서 낭만적인 뒷풀이도 있었음.

- 종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고 신효순, 심미선양 추모 한국문인협회 추모시 낭송회가 열렸고 SOFA개정과 부시공개사과를 촉구.
- 여중생 범대위 방미투쟁단은 7일에 이어 8일(현지시각 7일)에도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한·미소파 개정과 부시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서명지를 백악관에 전달하려했으나 백악관 측이 받지않아 전달하지 못함.

09 오전 11시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14일 주권회복의날 선포, 기자회견을 열다. 이 보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민교협, 학단협 등 교수단체는 '평등 한·미 관계의 재정립'을 촉구하는 교수 7단체 기자회견을 열었음.

- 명동성당으로 보건의료노조 농성단 격려방문하고 차수련위원장등 본부간부들과 농성상황 설명듣다. (권오헌)
- 오후 3시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에서 전국사제단주최 살인미군 회개촉구를 위한 생명, 평화 단식 마지막 기도회에 함께하다. 마치고 곧이어 같은자리에서 미군범죄 근절과 SOFA개정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 주최로 '미군범죄 근절과 SOFA개정을 위한 단식농성' 입제식에 함께하다.
- 오후1시 미군장갑차범대위 주최로 청와대 앞에서 '한국 정부 대미굴욕외교 규탄' 집회를 열다.

10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제55회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사면 복권을 촉구 하는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다. 이상규 한청 비상대책위원장 사회로 이강실대표의 여는말 김이경씨의 청와대 면담 신청보고, 양심수석방 사면촉구발언 (권오헌) 기장회견문 낭독 (최병모 민변회장) 순서로 진행하다. 마치고 청와대에 양심수 명단 등 전달하다 (조순덕 , 이강실, 김이경, 권오헌)

- 열린시민공원에서 불평등한 SOFA개정국민행동등 공동으로 제39차 반미연합집회열다. 문정현신부의 여는말. 권오헌의 미대사관에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이어 권오헌, 변인식, 신현수 ,심수보씨 등 미대사관으로 항의서한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제지로 몸싸움만 하다. 다시 뚫고 미대사관에 갔으나 미 대사관측이 받지 않는다는 오만방자한 행패로 되돌아옴.
-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보이지 않는손' 발언과 관련 여중생 범대위 대표단 한나라 당사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정책위의장 등 보다 강력 항의
- 1975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대법판결 8시간만에 사법살인 당한 인혁당사건 유족들이 '고문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수사기록 공판조서를 토대로 유죄가 내려 졌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내다.
- 서울지법형사 8단독 이민영 판사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 (병역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나동혁(26세)씨에게 '아직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며 1년 6월 실형 선고.

11 대학로 홍사단 강당에서 12월14일〈주권회복의 날〉에 즈음한 '무죄재판 원천무효! 살인미군 한국법정처벌! 부시사과! 한 · 미소파개정! 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정당 전국비상 시국회의 열다. 최근호 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참석자 소개 보고사항 각계각층 지역대표 발언이 있은 다음 안건토의- ①12.14일 주권회복의날 범국민 행동지침 ②주권회복 선언문 ③재정문제 ④14일 이후 중요사업 논의 등

- 스커드미사일등을 싣고 인도양을 항해하던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속화물선을 미국의 지시에 의해 하수인 스페인 해군 함정, 항공기 등에 의해 정선하고 짐을 조사했으며 강제로 공해상에서 미해군 지원시설이 있는 영국령 디에고가르시아섬으로 9일 옮기고 있는 것으로 미국방부가 10일 발표했다고 11일자로 보도되다. 공해상에서 미국의 이 같은 해적행위에 양심적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 나포만행은 미 최고위층, 바로 부시의 지시인 것으로 알려지다.

12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한총련주최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2003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대선 후보 공개면담 기자회견을 열다. 이 회견장에는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전국연합, 민가협 , 통일광장 등 사회단체 대표와 성원 함께함. 김성훈 광운대 총학생회장 사회로 경과취지말(사회) 규탄발언(권오헌) 기자회견문 낭독(유복재 외대학생회장) 등이 있었음. 마치고 학생대표들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항의서한 전달함.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452회 목요집회 열다. 여는말 - 임기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연설 권오헌, 여중생살인만행규탄 이관복 등으로 이어졌음.
- 미 대사관 앞에서 보건의료단체 주최로 불평등한 소파개정과 전쟁반대를 위한 보건의료인 1211인 선언 기자회견 열다.
- 지난 2일 미국으로 떠났던 여중생범대위 방미투쟁단이 10박 11일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 범대위 대표들 환영을 받으며 한상렬 단장 등 귀국 성명기자회견을 열다.
-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불평등한 한미 SOFA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를 주제로 토론회 열림. 고영대씨 사회. 이장희교수, 이정희변호사, 원희룡의원, 송영길의원, 최규엽자통위원장, 유기홍(개혁정당), 김판태(자통협)씨 등 발제와 토론이 있었음. 그러나 정부관계자 (최종민-국무총리 외교안보심의관, 조태용 외교부북미국장 성영훈 법무부 법무연수원 부장검사, 김광우 국방부 미주정책과장)는 현행 SOFA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
-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의무사항인 중유 공급 제공을 전제로 했던 핵동결 조처를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
- 세종로 미대사관 앞에서 한 · 미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을 희망하는 100여 명의 사진가들이 여중생 살인만행에 항의하여 사진기를 내려놓고 성명을 발표하다.
- 동대문 찻집에서 기획모임을 열어 각 소모임 한 해 평가를 진행함. 이창희, 송창학, 장재영, 이승미, 노혁, 김숙희 등이 함께 함.

13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변호사등 변률가 196인 기자회견을 열고 SOF개정 부시사과촉구 성명서 발표마치고 최병모 민변회장 등 미대사관에 항의서전달하다.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범종교인 300여명은 '종교인 생명 · 평화선언대회' 를 열고 덕수궁까지 항의 평화 행진하다.
- 워커힐 무궁화 볼룸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후원회 주최로 범민련 후원의 밤 행사열리다. 임종철 후원회부회장 사회로 3인기악 연주, 희망새 공연에 이어 홍근수목사의 모시는 말, 이덕우 감사의 경과보고, 손장래 민화협상임 대표의 축사, 범민련

공동사무국 임민식의장의 이종린의장과 전화 축사등이 이어졌고 오신분소개와 식사를 하면서 오종렬, 강정구, 백기완, 정현찬, 권오헌, 임기란등 각계대표 축사가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 이정규운영위원, 변세현, 소수영, 조명희님 등이 함께

- 이북은 IAEA에 핵시설에 대한 봉인해제와 감시카메라를 제거하는 요구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보도
- 노무현 민주당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는 선거 및 정책공조협상을 매듭짓고 공동유세에나섬

14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집행부 주례모임 시와노래의 밤, 10만범국민 평화대행진과 15일 회원송년모임 진행등 논의

- 매오로시에서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계시는 정순덕 선생님께 문병 다녀왔음.
-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오만한 미국규탄과 주권회복을 위한 10만 범국민 평화대행진이 열리다 제1부 규탄대회, 2부 추모문화제- 우리모두 반딧불이 되어 효순이 미선이의 아리랑, 3부 주권회복 촛불대행진 등으로 이어지다-(134호 후원회 소식 보심) 이날 주권회복의 날 행사는 전국 60여곳에서 300,000여명이 함께함.
- 장충체육관에서 민가협주최로 '제14회 인권 콘서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보랏빛 손수건' 공연이 열렸음. 민가협 · 양심수 후원회와 장기수선생님을 비롯한 3,000여 명과 오종렬의장 등 사회단체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열렸음. 인천 나사렛한방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정순덕 선생님도 오셨음. (후원회 소식 134호 보심) 주권회복의 날 촛불행진을 하고 시와 노래의 밤에 함께한 양심수 후원회원 50여 명은 공연이 끝나고 장충족발집에서 푸짐한 뒷풀이를 했음.

15 서울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 새서울 주물럭에서 양심수후원회원과 민가협어머님 출소장기구금 양심수를 비롯한 범민련, 전국연합 4월혁명회 통일광장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양심수후원회 2002년 회원 송년모임이 있었음. (후원회소식 134호 보심)

16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2회민주언론상 수상기념 「민중의 소리」후원의 밤 행사에 함께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송창학, 변의숙, 김숙희, 김미성, 고광희, 권오헌이 함께했고 마친다음 열린시민공원에서 여중생살인미군 무죄판결원천무효 부시사과 소파개정을 위한 개신교목사 등 단식농성 중인 농성장 격려방문하다.

17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북 · 미 제네바합의 이행 불가침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김승국 통일연대 평화위원회 위원장사회로 이종린범민련 남측본부의장 여는말 이상규 한청비상대책위원장 촉구발언 윤영탁 실천연대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서울지방법원 합의 21부 (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전상봉, 정대일, 이승호씨등 한청간부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증인심문이 있었음.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공안문제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사람은 5~60년대 냉전논의만을 말하고 있어 판사로부터 주의를 받을정도였음. 변호인측 증인으로는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김연철 연구교수가 나와 한청문건등이나 활동내용에 이적성 없다고 증언.

18 중구세실레스토랑에서 민주공원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열다. 5차회의 보고에 이어 민주공원 건립 중앙민관합동 추진기구 검토건 등 협의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후원의 밤 행사 진행 되다. 남상헌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한상범, 권오헌, 임기란님등 축사와 후원 및 음식나누기.
- 한청 전상봉의장 보석으로 오늘 출감하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한청회원들과 범민련, 통일광장, 전국연합,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원들이 마중했고 전상봉의장 인사말에 이어 이종린, 권오헌, 임기란, 임방규선생등이 환영사를 했고 근처식당에서 환영식사 함께하다.
- 국민통합 21 정몽준대표는 민주당과의 합의를 깨고 노무현후보의 '북미간 전쟁이 일어나면 말리겠다'는 발언과 관련 단일후보 지지철회를 선언하는 공조파기 하다.
- 양심수후원회 2002년 회원송년모임 참가자 이름으로 살인미군 무죄판결 오만한 미국규탄의 신문광고를 내다.

19 제16대 대통령선거의 날 유권자들 일제히 투표에 참여 오후 투표마감하고 각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하다. KBS, MBC, SBS 3사모두 노무현 당선예고하다 개표가 10시 30분 노무현 후보 당선 확실을 방송사 확인하다.

20 노무현대통령후보 12,014,277표득표로 16대 대통령에 당선되다.(48.9%)
이회창 11,443,277표 (46.3%), 권영길 957,148표 (3.9%) 얻음.

- 용산 미8군 정문앞에서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본부 등 주최로 미군범죄등 규탄 금요집회 열리다. 미군범죄와 특히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을 규탄
- 후원회소식 134호 최종 교정본을 넘기다
- 명동 향린교회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관으로 평화사랑방 송년모임 열리다.

21 종묘공원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범대위 주최로 '미군재판 원천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공개사과 소파

전면개정을 위한 제1차 미대사관 촛불 인간띠잇기 대회가 열리다. 대회사 홍근수, 투쟁사 진관, 이관복등 마치고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인도 따라 행진 -교보문고 앞에서 집화 미대사관으로 경찰제지 뚫고 행진 애워 싸다.

- 양심수후원회원들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등 토요캠페인 벌임. 마치고 촛불행진에 합류 미대사관 앞까지 가다. 송창학, 주경임, 김현희, 변의숙, 유선화, 김범용, 한재경, 권오헌 함께.

22 불교인권위원회 인권법당에서 동지팥죽을 쑤어 유가협, 민가협 어른들 대접하다, 진관스님 감사합니다.

- 한국기독장로회 향린교회 주관으로 한·미 소파 전면개정과 민족자주권 확보를 위한 평화 기도회가 -명동 향린교회에서 명동 우리은행 앞까지 행진.- 그곳에서 진행하다. 홍근수 목사님의 설교 등이 있었음.
-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영변의 5메가왓트급 원자로에 설치된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 작동을 21일 중지시킨 것으로 22일 보도되다.

23 미대사관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미군재판원천무효 살인미군처벌 부시공개사과 소파전면 개정을 위한 12.31일 100만 촛불평화대행진에 즈음한 기자회견에 함께하다. 기자회견에서는 노무현 당선자와 부시 미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도 낭독하다.

- 천주교 프란치스코 가족수도회와 천주교대책위등 열린시민공원에서 미군장갑차희생 두 여중생 추모와 소파개정을 위한농성정리 미사 드리다.
- 이북이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력에 이어 8,000여개의 사용후 핵연료봉 저장시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했으며 23일 핵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봉인 제거에 착수했다고 IAEA대변인 밝힘.
- 소식지 발송작업을 낙성대 회원 모임방에서 함. 문상봉 선생님과 김영식 선생님이 함께 도우심. 이창희, 한재경, 이일규, 김숙희, 이승미, 오수강, 김현희, 이진, 박지윤, 박정범 등이 함께 함.
- 소식지 편집모임을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가짐. 134호를 평가하고 135호 준비를 논의함. 오수강, 박정범, 이창희, 이승미, 김현희 등이 함께 함.

24 광화문 교보문고앞에서 효순이 미선이와 함께하는 성탄부활의밤 촛불행사 추모공연등이 진행되다.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는 천주교 대책위를 주관으로 성탄자정미사 올리다.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보건의료노조 가톨릭병원 노조원을위한 고난받고 탄압받는 병원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기도회 및 촛불시위를 7시부터 12시까지 이어져 진행되다.
-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라크와 '북한' 등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능력이 있으며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함으로 전쟁미치광이 행태를 다시 보여주다.
- 소식지 발송 (국내 1,174통, 국제 18통)

25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효순이·미선이 추모 성탄미사가 낮 2시 열다.

- 노무현 대통령단선자는 새정부의 정책과제를 정리할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임채정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임명.
- 217일째 장기파업농성을 해오던 강남성모병원등 가톨릭 중앙의료원 3개병원 노조는 25일에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하기로하다. 사용자 측과의 타협의 여지가 없어 일하면서 현안을 해결한다고 하다.

26 민가협 목요집회 453회 탑골공원 앞에서 열림. 여는 말 조순덕 상임의장 하영옥씨 어머님 사례발표 서경순 전 국가보안법 폐지연설. 권오헌공동의장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양심수 석방촉구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6일 이북이 영변 원자력연구단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해 연료봉 1천개를 원자로시설의 임시보관소로 이용했다고 밝힘.

27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영화 007상영중지를 기한 제단체 연석회의 열리다. 이 영화상영과 관련 상영관 앞에서 상영반대 캠페인 벌이기로 하다.

- 용산미 8군 앞에서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와 민가협 회원 등 미군범죄 규탄과 미군철수 주장하는 금요집회 열다. 권오헌 미군범죄 규탄 연설하다.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성공회신부와 신자들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규탄과 소파개정부시사과를 위한 철야농성 계속하다.
-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사이버 범국민대책위원회 공식출범기자 회견을 열다. 범대위는 맥도널드 햄버거, 코카콜라, 007영화 안보기 등 3안 운동을 벌이기로 하다.
- 이북의 리재선 원자력총국장은 이북에 상주하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을 추방하기로 하고 폐연료봉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핵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한 것으로 밝혀지다.

28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집행부 주례모임 열다. 새해 인사모임. 새정권 출범과 양심수사면문제 135 후원회소식 발간. 홈페이지 관리문제 회원관리 등 협의. (이창희, 송창학, 권오헌)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계시는 정순덕 선생님께 매오로시에서 문병을 다녀옴.
- 종묘공원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미군재판 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공개사과, 소파전면 개정 2차 미대사관 촛불 인간띠 잇기 대회 열리다. 대회를 마치고 인도로 광화문교보문고앞으로 촛불행진 4000여명 모이다. 경찰의 제지선 뚫고 촛불시위자들은 미대사관 앞으로 진출했고 대사관을 완전히 애워싸다.
- 양심수후원회원들 탑골공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석방 토요집회를 열고 촛불행진에 합류 미대사관앞 진출에 깃발들고 앞장서다. 마치고 민가협어머니들과 후원회원들 함께식사 -오늘 참석인원, 송창학, 주경임, 유선화, 박지윤, 김미성, 이승미, 이일규, 이창희, 권오헌 - 오늘 전후원회간사 송록희님 따님 등 어린이 4명을 데리고 나와 사진기자들의 집중 사진세례를 받다. 무대에 올라가 노래도 하고 촛불시위도 함께 했음. 반가 왔습니다.
- 이른바 '민혁당' 사건 가족 김소중, 박윤희, 최진미씨와 양심수후원회 이정태 운영위원 등이 1박2일로 전국을 돌며 소위 '민혁당' 사건관련 양심수 대전교도소 하영옥씨, 전주교도소 임태열씨, 광주교도소 최진수씨, 안동교도소 김경환씨 등을 면회함. 이의엽, 유성경씨와 함께 부산교도소에 있는 박경순씨도 함께 면회함.

29 미국이 이북에 대한 핵무기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정치적 압박을 강화해 경제붕괴에 봉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맞춤형 봉쇄 (테일러드 컨테인먼트) 정책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언론이 보도하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 경제 제재 이북주변국들에 경제교류 축소 권유 이북의 돈줄을 끊는 미사일 수출선박 나포 심지어 이남정부에 이북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력을 넣는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다. 제국주의 재권주의자들이 오만방자한 행패이다.

30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4차년도 사업 및 회계감사를 받다(4~11월까지) 오늘감사에는 노중선(4월혁명회 공동대표) 강정구교수 등 두감사님이 함께했음.

- 효순이 미선이 마을 주민을 비롯한 범대위 대표들이 함께 하는 2차 촛불시위가 미선, 효순이 마을에서 진행되다.
- 김대중대통령은 이북의 핵문제와 관련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될수록 햇볕정책이 더욱 유효한 방안' 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라고 언명, 또한 쿠바 옛 소련 등 공산국가에 대해 억압과 고립화로 성공한 일이 없다며 이른바 맞춤형 봉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다.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녹색연합, 평통사등 15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대국회 요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을 열다. 기자회견에서는 '한반도 위기 대책 범국민기구' 설치를 요구했음.
- 정부는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했던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등 기업인 공직자를 포함해 122명에 대한 31일자로 특별사면, 복권 및 감형을 하는 대통령 사면을 단행하다. 사면복권 대상은 사형수 4명 경제인 14명 고위공직자 5명 공안사범 40명 선거사범 8명 외국인 51명이라고 했음. 이번 사면에서 양심수석방은 한사람도 없었고 다만 이미 2~3년 전에 출소한 사람에 대한 형 면제등 사면·복권이 있었음.

31 미군장갑차 여중생 범대위 주최로 광화문 교보빌딩 옆 종로거리에서 '100만 범국민 촛불평화 대행진' 집회열리다. 오종렬의장의 대회사와 홍근수목사의 소파개정, 부시사과 촉구발언. 우리나라, 양희은, 장사익 등 노래공연이 있었고 이어 미대사관으로 촛불대행진을 시작했지만 미대사관으로 통하는 광화문 일대를 전경차, 임대차 등으로 바리게이트를 쳐 놓고 있어 끝내 미대사관까지 진격은 하지 못했음. 양심수후원회원 40여 명 후원회 깃발 들고 참여, 마지막까지 자리지켰음. 한상권, 송창학, 주경임, 인석, 인영, 유선화, 지수, 변의숙, 이승미, 모성룡, 나정옥, 아라, 두리, 이창희, 김호, 한재경, 왕준영, 김창희, 강석, 강산, 신현익, 이득형, 양계숙, 오수강, 권화숙, 박지윤, 이진, 장재영, 오영순, 영천, 영웅, 김숙희, 김형기, 김미성, 이일규, 이봉주, 권오헌 등 함께 함.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31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미국대북정책에서 한국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 서울 종로3가 서울극장 앞에서 통일연대 등 사회단체 성원들이 '007 어나더 데이' 영화 안보기와 상영중단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다.
-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150만원을 보냄.
- 출소 장기수선생님들과 양심수 가족들에게 지원금을 보냄.
- 양심수 57명에 영치금을 보냄.
- '말' 4권과 '민족21' 5권을 양심수들에게 보냄.